서상돈 아우구스티노

장면 요한

최정숙 베아트리체

김익진 프란치스코

김홍섭 바오로

불꽃이

20세기를 살아간
다섯 사람 이야기

향기가

되어

■ 김익진 프란치스코 교육가, 사상가, 문필가. 《동서의 피안》, 《내심낙원》 등 많은 번역서와 기고문을 남겼다. ■ 김홍섭 바오로 법관이자 가톨릭 사상가. 청렴한 생활, 신앙과 양심에 따른 바른 재판으로 '사도 법관'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 최정숙 베아트리체 제주가 낳은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 평생 고향 제주의 교육을 위해 몸 바쳤으며 의원을 열어 가난한 이들의 진료에도 힘썼다. ■ 서상돈 아우구스티노 대구대목구 초기의 대표적 평신도. 일생을 교회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노력했고 국채보상운동 등 나라의 재건과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 장면 요한 정치가이자 교육가, 문필가. 국가의 발전에 기여했다. 제1공화국 국무총리와 부통령, 제2공화국 국무총리를 지냈을 뿐 아니라 교회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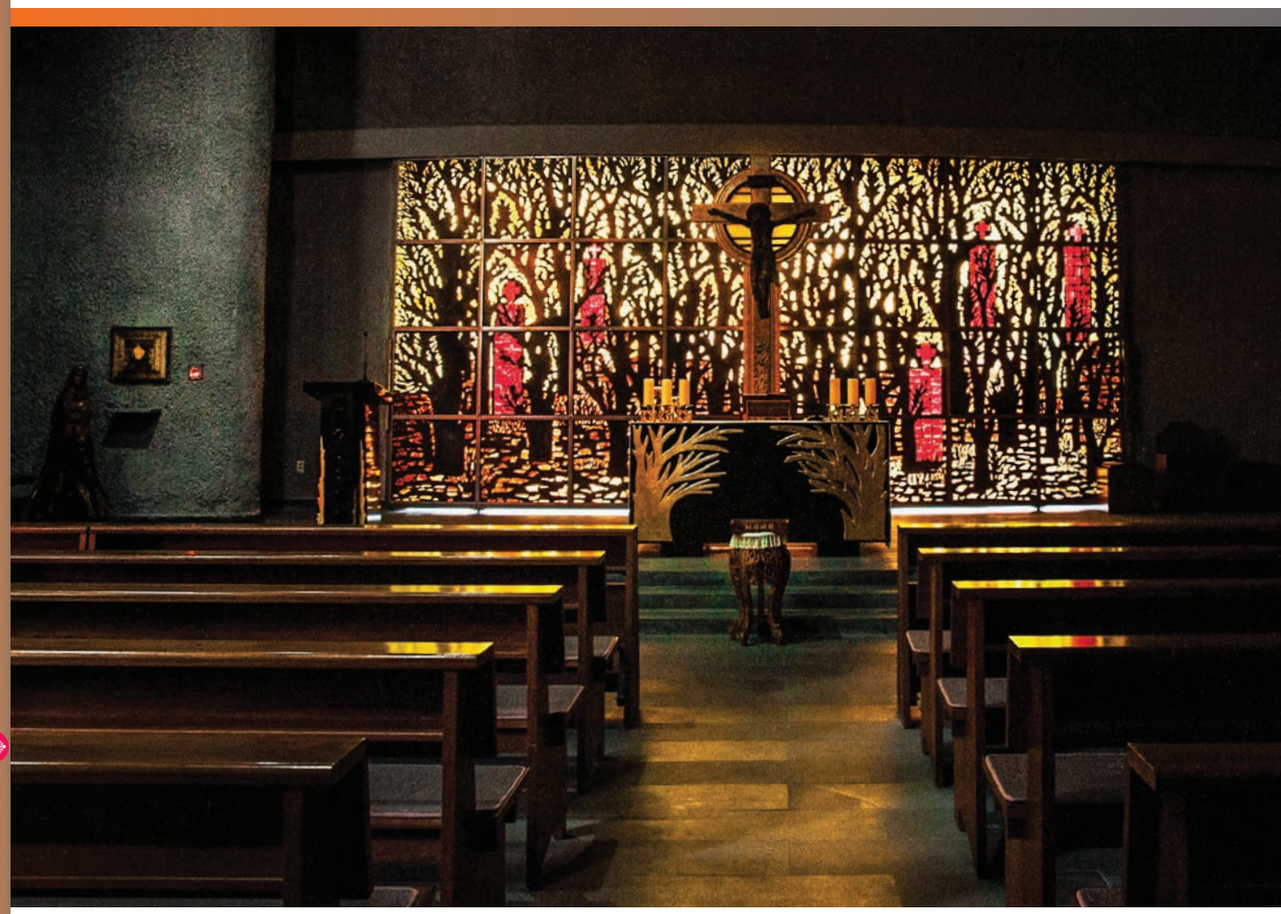
책값: 13,000원 엮은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펴낸곳: 도서출판 으뜸사랑 판매처: 가톨릭출판사 직영서점, 인터넷서점(예스24, 인터파크, 영풍 등)

2016년 가을 계간 53호 평신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16년 가을
계간 53호

평신도

인사 권길중 한국평협 회장 **만남** 길병석 청주평협 회장 • 포콜라레 **나눔**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 특강 • 평신도 연구 • 한국평협 심포지엄1 **휴식** 안동교구 문경본당 당포공소 **이야기** 북한생활 체험기2 **배움** 인문학 강좌 • 수도회 영성 • 영화 속 '인간과 세상' • 영화음악 세상 • 평신도 양서 **소식** 교구평협 • 회원단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평신도

발행인 권길중 바오로
담당사제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장 배봉한 세례자 요한
편집위원 권지영 데레사, 김문태 힐라리오, 나권일 토마스, 류주희 클로틸다, 명백훈 프란치스코, 서상덕 스테파노, 오완수 바오로 (가나다 순)
제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디자인 · 인쇄 가톨릭출판사

사진/ 갈매못성지 – 유동희 바오로

충남 보령시 오천면의 바닷가에 있는 갈매못성지는 병인박해 때 5백여 명의 교우들이 순교한 곳으로, 그 가운데 다섯 분이 성인이 되셨습니다. 갈매못은 갈마연(渴馬淵), 목마른 말에게 물을 먹이던 연못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증으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라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신 신앙선조들, 갈매못의 순교자 성 안토니오 다블뤼 주교님의 좌우명을 새겨봅니다. "예수님을 차지한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2016년 가을
계간 53호

차례

인사
02 회장 인사말 / 권길중

만남
04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나권일
08 평신도가 뛴다 / 권지영

나눔
12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 특강 / 조광, 서상덕
18 평신도 연구/ 박순석
20 한국평협 심포지엄1 / 정희완

휴식
33 안동교구 문경본당 당포공소 / 김정은

이야기
34 북한생활 체험기2 / 박정일

배움
41 인문학 강좌 / 김문태
44 수도회 영성 / 김용성
46 영화 속 '인간과 세상' / 이대현
50 영화음악 세상 / 정성엽
52 평신도 양서 / 류주희

소식
54 교구평협 · 회원단체

인사

회장 인사말

150년 전 '병인년 순교', 오늘도 삽니다

권길중 바오로 한국 · 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모진 고난과 싸우며 주님을 보이신/ 굳센 믿음과 용기 우리게 전하소서.
신앙진리 증거하며 생명을 던지신/ 당신의 사랑과 증언 빗물로 부어주소서.
이 땅에 흘린 피가 꽃피고 열매 맺게/ 순교자 신앙고백 기리며 따르리라.
(중략) 지금 여기서 살리라."

올해는 병인 순교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위의 글은 한국평협이 주최한 제10회 우리 성가 공모전에서 전수진 님이 작사, 작곡하여 우수상을 받은 '순교자의 고백'이라는 노래 가사 중 일부입니다. 올해 성가 공모에는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병인 순교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순교자들의 영성을 오늘에 살 수 있는 내용에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사와 곡의 일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별도로 공모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두 차례 시행하고 있는 전후반기 연수도 '순교영성'과 '순교자 후손답게 살겠습니다.'로 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전반기는 서울대교구 평협이 주관하였습니다. 후반기 연수는 인천교구의 갑곶성지에서 병인순교 15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교회의 현황과 평신도의 사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개막미사에서 정신철 주교님께서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들의 소명은 매우 큽니다. 신앙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분들의 후예답게 산다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주제를 발표해 주신 두 분 신부님과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뿐 아니라, 자리를 채워주신 모든 상임위원들 사이에는 성스러운 결의로 예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른 듯했습니다.

이 불길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닙니다

지난 9월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교인 7대 종단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 워크숍을 했습니다. 각 종단에서 지금까지 전개해 온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 전개해 나갈 방향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와 같은 실용적인 목적 외에 잠재된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이제까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종교 간 평신도들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교의 평신도들끼리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더욱 화목하고 돈독한 분위기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욕심(?)입니다.

첫날 첫 시간에는 주최자인 제가 이 워크숍의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전국 각지에서 새벽같이 달려온 분들입니다. 말씨도, 성장한 환경도, 믿는 종교와 신념도 서로 다른 분들입니다. 모이고 보니 연령대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너무 많은 작은 군중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이분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편안하게 지내면서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이 워크숍을 준비해 온 실행위원회에서 "원고를 미리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미 저의 이야기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활자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원고가 아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 민요 아리랑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선정되었답니다. 누구나 즐겨 부르는 우리 민요 아리랑을 한자로 표기하면 '我理朗'이 됩니다. 즉 아리랑은 나(眞我)를 알게 된 기쁨입니다. 유교에서 제1 원리로 삼는 것이 나를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기를 찾기 위하여(爲己) 자기가 아닌 것들을 버리는(克己) 일입니다. 허위와 기만이 없는 진정한 자기를 찾아 그 본연의 모습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퇴계 선생님은 '경연강의'에서 송나라 장횡거의 '서명'에 '나(吾)'라는 단어가 10회나 반복, 강조된 것을 말하면서 공자가 추구한 인(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게 넘쳐서 무엇을 말하고 듣든지 서로 공감하고 막힘이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하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어제 저는 충북 제천의 청풍호를 다녀왔습니다. 제천에서는 청풍호, 단양에는 단양호, 충주에는 충주호가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모노레일을 타고 비봉산 정상에 올라서 보았을 때 거기에는 단 한 줄기 남한강만 있고, 나누어진 어떤 호수도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는 하느님의 눈으로만 상대를 보고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듣기로 약속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여기에 온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기로 약속합시다. 사랑합니다."

그 진행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저는 '하느님의 손길'을 느낀 참으로 아름다운 모임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종교를 부각시켜 보려는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마지막 문을 닫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단상에 섰을 때는 모든 분들이 '천사'로 보일만큼 평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 종단에서 온 모든 대표들은 가득한 사랑을 느끼며 '답게 운동을 더 열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결의로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기쁘고 만족한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마태 18,20 참조)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준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행과정에서도 우리 사이에 자기를 좀 더 드러내고 싶은 욕심을 버릴 수 있었던 순교정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말들 속에 딱 한 마디만 살아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느님을 더욱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150년 전의 순교가 교회 안에서만 그 뜻을 찾을 수 있는 닫힌 순교가 아니라 조선사회 전체를 향한 열린 순교였듯이 지금 우리가 전개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운동도 우리 사회에 활짝 열려있어야 한다는 말로 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만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길병석 베드로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봉사할 수 있다는 건 은총이지요

대담 · 정리
나권일 편집위원

청주교구 평협에서 대외협력부장, 교육부장, 부회장으로 일한 길병석 베드로 회장은 오랜 시간 '단련되고 준비된' 평협 회장이다. 길 회장은 또한 청주에서는 내로라하는 사회 명사이자 지난 28년 동안 청주 민안과의원 원장으로 일하며 봉사와 기부활동을 왕성하게 해왔다. 〈평신도〉 가을호를 위해 뜻깊은 만남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신앙의 참기쁨을 알려주신 길병석 회장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길병석 회장. 오랜 사회봉사 활동과 교회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2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4년 8월 16일 충북 음성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에서 평신도 지도자들과 만난 역사적인 그 장면이다. 참석한 153명의 평신도 대표들과 일일이 악수하신 교황께서는 "한국교회와 순교자들은 모범적인 애덕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신앙을 증언했다."며 "이 값진 유산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봉사의 활동 안에 줄곧 살아 있다."고 따뜻한 미소로 격려하셨다. 한국 평신도를 대표해 교황 성하를 맞이했던 권길중 한국 평협 회장을 비롯해 경향 각지에서 달려온 평신도 지도자들이 가슴 벅찬 행복을 맛보았던 것은 물론이다. 길병석 베드로(67세) 청주평협 회장도 2년 전 그 아름다운 장면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 감동을 잊지 않으려고 얼마 전에 청주 평협의 지도자들과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다.

교황님이 방문하신 길을 따라 도보순례를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교황님의 꽃동네 방문 2주년을 맞아 그 하루 전인 8월 15일에 교황님께서 가신 길을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걸었습니다. 우리 교구의 평신도 간부들이 교황님의 영성과 말씀으로 새로이 거듭나기 위해 함께 모여 그때의 감동을 되새기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막바지 무더위도 우리들의 그런 결심과 실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보순례를 마치고 함께 모여 기도했는데,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길병석 회장이 도보순례 행사가 끝난 뒤 당시의 그 감동을 사진으로 보내왔다.)

청주교구 평협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구는 규모는 작지만 신앙적으로는 참으로 복 받은 교구입니다. 1896년 설립된, 기적의 역사와 의미를 갖고 있는 감곡 매괴성당이 있고, 최초의 조선교구 신학교 마을인 진천 배티 순교성지, 황석두 루카 성인의 안식처인 연풍성지, 그리고 국내 최대 사회복지 시설인 꽃동네가 있지요. 이런 복 받은 교구에서 우리 평협은 장봉훈 가브리엘 교구장님의 사목방침인 '말씀과 성체 중심의 평신도사도직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특히 '기도 잘하는 평협', '성서 많이 읽는 평협'이 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교구 선교사목국장이신 서철바오로 신부님의 지도 아래 저를 비롯해 15명의 간부들, 그리고 78개 본당 평협 회장들로 구성된 상임위원들이 마음을 다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훈련되고 준비된 평협 회장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요?

"매년 4월이면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대회, 5월에는 생명위원회 주도로 생명수호대회를 열어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교구 내 주요 성지를 찾아 도보성지순례를 합니다. 올해는 9월 24일에 교구장님 집전으로 배티성지에서 3,000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성체강복대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교구는 특별히 가경자인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해 전 신자가 날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협에서는 그날도 4시간 도보순례를 하면서 최양업 신부님이 하루 빨리 시복시성되도록 묵주기도를 바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평협 회장을 맡아 오신 것으로 압니다. 내년에 더 알찬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신다고요?

"'어르신 성경읽기 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경암송은 어르신 신자들에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루 한 장 성서읽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당(수동천주교회)에서 하는 성서백주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참 묵상할 거리가 많고 좋더라고요. 교회에 지금 냉담교우들이 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우리 교구장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살고 성체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신자들에게 성경읽기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서를 읽으면 내가 변하게 돼요. 내가 변하면 그 변화한 나를 보고 이웃 사람들이 변하니까 신자답게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청주 읍성 안팎에 박해 시대 순교터와 신앙 증거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청주 시내에 있는 청주읍성 주변 순교터에 더 많은 순례자가 방문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옛 충청병영, 그러니까 현재 중앙공원 입구에 순교현양 표지석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10분 정도 거리라서 저도 마음이 답답할 때 묵주기도를 하고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내년에 여기에 기도소를 설치하면 더 지향을 두고 기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3운동'에 '답게 삽시다' 접목

'답게 삽시다' 운동과 관련해 청주 평협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올 12월 정기총회 때 '답게 삽시다' 운동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구가 2년 전부터 '153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53운동은 나부터 변화하자는 쇄신운동인데요. 1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1차례라도

하고, 성경 1장이라도 읽자는 것입니다. 5는 매일 묵주기도 5단을 바치자는 것이고요. 3은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루 3번은 하자는 것입니다. 153이란 뜻은 예수님의 명을 받은 베드로가 그물에서 끌어올린 물고기 수를 말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자는 것이지요. 모나미 볼펜이 153이니까 외우기도 쉽고요.(웃음) 153운동의 이런 취지와 '답게 삽시다' 운동을 잘 접목시켜 볼 생각입니다."

길병석 회장은 청주에서는 유명인사다.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지하상가에 자리한 '민안과의원'이 길 회장의 일터다. 1987년 개업한 안과 전문병원으로 청주시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안과의원으로 명성이 높다. 국내 시력교정수술 1세대로 꼽히는 길 원장은 라식 · 라섹수술과 백내장수술의 베테랑이다. 줄잡아 2만여 명이 그의 의술을 통해 안과 질환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회복했다. 의술은 인술(仁術)이다. 평신도 지도자이기 전에 의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 오신 것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평신도 지도자로서 늘 깨어있는 삶을 강조하시는데요, 우리 평신도가 자신의 일터에서 어떻게 순교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28년 동안 한 자리에서 안과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로 살면서 환자들과의 관계에서 겪은 일들이 많아요. 옷차림이 남루하고 힘드신 분이 병원에 오셨을 때 제 나름대로는 '하느님께서 이런 차림으로 같이 오셨구나!' 하면서 속으로 '오소서 성령님!'을 외치지요. '저 분을 통해 하느님이내게 주신 의미가 뭘까?'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환자분에게 말을 건네면 이 분도 저를 편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술까지 잘 이뤄집니다. 현대의 순교는 평신도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영성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것도, 살면서 나태해지거나 답답할 때 나를 잘 못 볼 수 있는데, 그때 성지에가서 기도하면 나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잖아요."

교황님께서는 2년 전 한국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사회의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시는 주님을 모셔다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간 증진이라는 분야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도록 격려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저마다 품위있게 일용할 양식을 얻고 자기 가정을 돌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오소서 성령님!' 을 외치는 길병석 회장은 늘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고자 애쓰는 참 평신도의 모습일 것이다. 그는 어떻게 하느님을 알게 됐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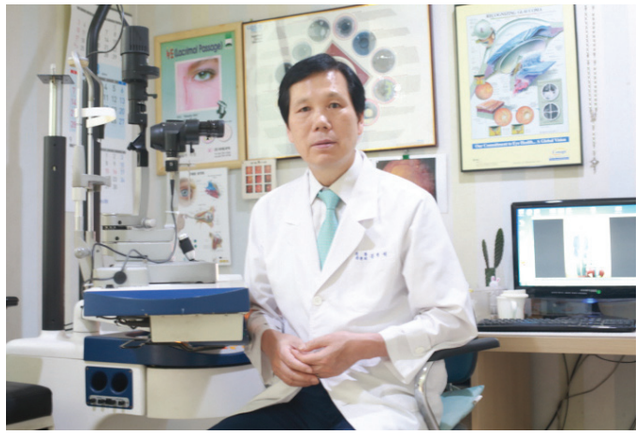
청주 사람들이 신뢰하는 명의

언제 하느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1969년에 세례를 받았어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과 2학년 때입니다. 친구와 성경구절을 놓고 토론하게 됐는데, 의문 나는 점들이 많아서 신부님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교리반에 중간에 들어가게 돼서 조금은 속성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웃음) 아내인 안나는 모태 신앙인데, 의료봉사회 활동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1남1녀를 두었는데, 결혼한 딸과 사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조금 늦게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지금 쌍둥이 외손자를 둔 할아버지인데, 환자들을 위해 집도하고 수술을 합니다. 가족들 모두가 이렇게 신앙의 뿌리 안에서 살고, 이렇게 하느님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 게 저는 좋습니다."

병원 일과 교회 일을 병행하셔야 되니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은 없어요. 미사도 더 많이 드리고,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돼서 좋습니다. 생각과 행동



길병석 회장이 28년간 운영하고 있는 민안과 의원에서 포즈를 취했다. 줄잡아 2만 명의 청주 시민이 길 원장의 의술을 경험했다.

에서 하느님을 맨 으뜸의 자리에 놓고 신앙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고요. 제가 본당에서 복사를 하고 있는데, 미사참례의 기쁨과 치유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평협 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은총이지요. 다만 지금도 병원에서 환자를 봐야 하니까 교구의 행사에다 참석하지 못할 때가 많아 죄송할 따름입니다."

살면서 몇 번은 힘든 일도 겪고 고비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겨내셨는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민거리가 있을 때는 성경을 들춰봅니다. 성경구절 하나가 혼란스러웠던 내 마음을 바꿔주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때는 '아! 내가 하느님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런 고민을 주셨구나!' 하고 느낀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한때 병원이 잘돼서 돈도 제법 모았습니다. 그래서 병원 외에 교육사업에 뜻을 둔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갈등만 겪고 접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 힘만으로는 안 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마음이 심란해서 신부님, 수녀님을 찾아뵀더니 '열심히 기도하라.'고만 하세요. 기도했는데, 하느님이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지는 않더라고요.(웃음) 정말 작정하고 온전히 매달렸더니 해결해 주셨어요. 돌아보니, 그렇게 겪은 어려움마저도 나를 하느님 곁에 머물게 하려는 은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는 말씀 따라

꽤 오랫동안 사회에서 봉사생활을 해 오셨더라고요!

"글쎄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웃음) 개원하고 나서는 청주가톨릭의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주로 면지역 성당을 다니며 의료봉사를 했어요. 해외봉사도 마다하지 않고 다니다보니 자원봉사만 3,000 시간을 했더라고요. 로타리클럽에서 봉사하다 충북 로타리클럽 총재도 지냈고, 얼마 전까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앙협의회 의장으로 회원이 14만여 명이나 되는 단체를 맡아서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와 평협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베드로도 세 번 주님을 배반했지요. 저도 여러 번 교회가 아닌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선택의 길에 서 있을 때마다 하느님께 기도했더니 다 좋은 결정을 내리게 해주셨어요. 지난해 말에 평협 회장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하느님께서 "그동안 네 기도를 다 들어주었는데, 이래도 너 자꾸 나한테 안 돌아올래?' 하시는 것 같았어요.(웃음) 하느님께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사회봉사는 접어두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덥석 받았지요."

2년 전 사랑의 영성원에서 교황님은 말씀하셨다. "평신도로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여러 가지로 많고 또 여러분의 사도직이 다양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고 완성시키며 그분의 나라가 오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교회의 사명 수행을 진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 의사인 길병석 원장이 지금 청주평협 회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것도 "교회의 사명 수행을 진전시키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평신도가 뛴다

포콜라레 *Focolare*

대담 · 정리
권지영 편집위원

가을호에 소개할 평신도 단체는 마리아 사업회입니다. 남자 대표와 언론 담당자와 인터뷰하면서 무엇보다 포콜라레 운동 창설자인 키아라 루빅 여사에 대해 공부하게 됐는데, 마치 세계사 속의 인물을 마주하는 것 같아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키아라 여사가 포콜라레 운동을 통해 나눔의 경제(EoC)를 전파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더니, 급작스레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함께 키아라 루빅 여사의 역사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키아라 루빅 여사(출처: 마리아 사업회 국제 정신 홈페이지)

포콜라레 운동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포콜라레 운동(Focolare Movement)은 전 세계 182개국에 전파돼 600만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톨릭 영성운동입니다. 포콜라레 운동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웃과 하나가 되는 정신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포콜라레는 이탈리아어로 '벽난로'라는 뜻으로 가족들이 단란하게 모여 앉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운동의 초창기에 사람들이 포콜라레 공동체에서 벽난로 주변에 모인 것처럼 마음이 따스해지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해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이탈리아 북부 도시 트렌토에 살던 여대생 키아라 루빅(Chiara Lubich)이 몇몇 처녀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펼친 이 운동은 '마리아 사업회'(Work of Mary)라는 공식 명칭으로 교황청에 등록됐습니다. 국제적인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 성장해 1950년대 유럽과 북 · 남미 지역으로 운동이 확산됐습니다.

이후 포콜라레 운동은 어떻게 전개됐고, 우리나라에는 언제 알려지게 됐나요?

1962년 교황청이 공식 인준한 포콜라레 운동에는 평신도와 사제, 수도자 등 남녀노소가 신분과 상관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일치 운동과 종교 간의 대화에 앞장선 포콜라레 회원 가운데 10여 명에 대해 가톨릭교회가 시복시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콜라레 운동은 현재 테러리즘과 종교 간 갈등, 양극화와 문화 간 충돌로 얼룩진 세계를 대화와 상호이해, 화해와 일치를 이루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9년 한국에 첫 포콜라레 본부를 설립했으며, 전국에 7개 공동체가 활동 중입니다. 이후 해마다 3박 4일가량의 여름 마리아폴리를 개최해 포콜라레 운동을 국내로 확산했습니다. 현재 지난 2003년부터 매월 한 차례, 이주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인 '행복마을'을 운영 중입니다.

한국 포콜라레 운동인 '행복마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행복마을은 매월 첫째 일요일에 열리는 무료 진료소입니다. 경기도 수원 청명고등학교에서 열리는데, 이주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2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진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170명 이상이 매월 이곳을 찾아옵니다.

내과부터 치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진료 이외에도 쌀과 옷가지 등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주민들을 위해 미용실과 한글교실도 운영하며, 어린이 돌보기와 한국놀이 체험하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국적은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합니다.

행복마을에 한 번 방문한 이주노동자들은 동료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북한이탈주민도 평균 50명가량 행복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행복마을에는 수원 청명고등학교의 학부모 봉사단과 학생 봉사단도 매월 함께하고 있는데요. 서로 함께 도우며, 즐겁게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원 청명고등학교 외에 지난 2008년부터 경산 진량중학교에서도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대구 행복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마리아폴리를 연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마리아폴리는 '마리아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연령과 신분,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며칠 동안 함께 모여 복음적 사랑과 일치를 실천하는 집회인데, 쉽게 말해 '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석한 이들은 자신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되며 한 해 동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2016년 마리아폴리는 "일치, 함께 가는 길"을 주제로 지난 7월과 8월 평창과 경주, 속리산 등지에서 4차례 열렸고, 각 차수마다 500~700명가량 참가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참가자들은 마리아폴리 시민이 되어 경험담 나누기, 묵상, 노래, 각종 워크숍(연극, 포크댄스, 합창, 산책, 아동심리 포럼 등)에 참가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함께 야외 카페에 모여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며, 젊은이들은 별도로 친교와 대화의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구미 마리아 사업회 단체(마리아폴리 참가 사진)

포콜라레 운동을 통해 5가지 대화의 길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지난 60여 년 동안 포콜라레 운동은 일치의 영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5가지 대화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① 가톨릭 신자들 사이의 대화 ② 개신교 형제들과의 대화 ③ 타종교 신자들과의 대화 ④ 종교적 믿음이 없는 이들(무신론자)과의 대화 ⑤ 현대 사회문화와의 대화입니다.

먼저 가톨릭 신자들 사이의 대화는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바티칸 성베드로광장에 모든 가톨릭교회 운동 단체들을 불러 모아 교회 역사 안에서 이들 카리스마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콜라레 운동의 창설자 키아라 루빅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 가톨릭교회 운동 단체들 상호 간의 친교와 일치를 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포콜라레 운동은 다른 운동 단체 대표들에 대한 방문과 초대, 공동행사 개최, 시설 공유 등 친교를 구체화하고, 수도회들과의 만남을도모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개신교 형제들과의 교류도 활발합니다. 현재 루터교, 개혁교회, 감리교회, 성공회, 그리스정교회 등 350여 개 교단에 속한 개신교 형제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포콜라레 회원들과 함께 일치의 영성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슬람, 불교, 유대교, 힌두교 등 종교와 문화가 다른 이들과 대화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는 '황금률'을 바탕으로 종교 간 갈등으로 증오와 폭력, 테러가 난무하는 현 시대의 평화의 씨앗을 심고자 합니다. 현재 이 운동에서는 타종교 신자들과의 대화를 위한 다양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무신론자들, 즉 특정한 종교적 신념이 없는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인류 공통의 보편가치에 대해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중시하는 인간의 권리에 대

지난 5월 2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새로운 경제모델'을 주제로 한 세미나

해서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구체적인 노력에 진정한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예전에 교회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거부하던 이들이,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대화는 포콜라레 운동을 사회 문화 분야로 전파하기 위해 시도된 것입니다. 이 영성에 바탕을 둔 학문연구를 통해 새로운 관점의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수학, 물리학 이론 등을 제시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인데요. 건축, 음악, 미술, 영화 등 예술 부문과 매스컴 분야에서도 대화가 진행 중입니다.

포콜라레 운동 안에는 여러 개의 대중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인가요?

포콜라레 운동은 사회 각 부문에 복음의 혁신을 가져가고자 하는 새인류운동, 가정생활의 보호와 성화에 초점을 맞춘 새가정운동, 교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본당운동, 사제운동, 수도자운동 등이 있습니다. 또 대학생 이상 직장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치된 세계를 위한 젊은이 운동' 일명 '새젊은이운동'도 활동 중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가령, 누군가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얼마 안 가 서로 간의 사랑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점차 이 사랑은 모든 이를 사랑하는 보편적인 형제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포콜라레 운동은 이 보편적인 형제애를 믿고 그 사랑의 불꽃을 세상 곳곳에 전파하려고 합니다. 인류가 한 가족으로 일치되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끝으로, 포콜라레 운동 안에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유의 경제를 실천하고 있다는데, 어떤 것인가요?

'공유경제 EoC(Economy of Communion)'는 포콜라레 운동 창설자 키아라 루빅 여사가 1991년 브라질 방문 당시, 상공에서 화려한 고층 건물을 둘러싼 파벨라스 빈민촌을 목격한 후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새로운 경제 개념인 EoC를 기업인들에게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기업 이윤 일부를 가난한 이들과 나누고, 나머지는 직원과 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영기법으로 나눔과 친교의 기업문화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EoC는 1943년에 창립한 포콜라레 운동이 1991년부터 써온 용어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국가주의 공공복지 체계'의 실패하는 양면적 실패를 극복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관련 기사에 등장하는 '공유경제'(Sharing

이탈리아 로마 룸사*Lumsa* 국립가톨릭대학 경제학과 교수 루이지노 부르니*Luigino Bruni.*

Economy,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함께 공유해 사용하는 소비경제)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EoC가 지향하는 본래 취지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정신을 경제 분야에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EoC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기업은 '성심당'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성심당의 EoC 경영 기법은 매달 직원 한 명의 월급을 기부하면서 첫걸음을 내디뎠고, 이를 바탕으로 빵을 매개체로 가난한 이와 부자, 고객과 직원, 협력업체, 경쟁사 모두 보편적 형제애를 실천해야 할 대상으로 품었습니다. 성심당의 경영 이념은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이기도 합니다.

성심당은 분기별로 세전 이익의 15%를 성과보수로 직원들에게 내어주고 있고, 성과보수 금액의 약 20%를 EoC 나눔 기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또 매달 81개의 사회복지 시설에 3,000여만 원 상당의 빵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EoC이론을 경영에 도입한 사업체는 성심당을 비롯해 전 세계 811개(2015년 10월 기준)가 있으며, 이 중 유럽이 463개, 남미 220개, 아시아에 18개가 있습니다.

나눔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 특강

병인순교와 현대사회의 평신도

글
조광 이냐시오 고려대 명예교수

정리
서상덕 편집위원

한국평협 전반기 연수회가 '평신도! 21세기 백색순교의 주역'을 주제로 지난 7월 8~9일 서울 마포구 절두산순교성지 내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회관에서 열렸다. 이 글은 연수회 중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 특강' 때 발표한 원고를 간추린 것이다.

조광 이냐시오 교수

1. 들어가는 말

시간은 변화를 수반한다. 시간을 다루는 학문인 역사는 그 변화를 추적하고 변화가 가지고 있는 원인과 의미를 탐구한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의 순간은 변화의 장면이다. 그러나 크로노스(chronos)로서의 시간은 그 질적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1000년 전의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최근 100~200년간에 걸쳐 진행된 시간의 질적 특성과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 그러므로 역사의 서술과정에서는 이전의 다른 시기와는 다른 격변기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된다.

19세기 후반 조선왕조가 처해 있던 상황은 한국사가 종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격변기였다고 규정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한반도는 새롭게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19세기에 이르러 태평양을 건너 서진(西進)해 오던 미국은 중국과 일본을 지나 조선에 이르고 있었으며, 인도양을 건너 동진(東進)해 오던 영국과 프랑스도 또한 중국을 넘어서 조선에 관심을 가졌다. 한편, 서진(西進)과 남진(南進)을 거듭하던 러시아의 경우에는 1860년 베이징조약 이후 조선과 국경을 마주하면서 조선에 대한 진출을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제정세를 감안하자면 조선의 19세기는 격변기임에 틀림없다. 조선은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국내외적으로 일대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1864년 고종(高宗)이 새롭게 왕위에 올랐고, 대원군의 '세도'(勢道)가 진행되었다. 특히 1866년에는 천주교에 대한 일대 탄압인 병인박해가 일어났고, 많은 조선인들과 함께 9명의 프랑스 선교사들이 죽음을 당했다. 올해는 그 병인박해 150주년에 해당되는 해다.

2. 박해와 침략의 양상들

박해의 사전적 의미는 "힘이나 권력 따위로 약한 처지의 사람을 못살게 굴거나 해를 입힌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박해라고 할 때는 특정 종교 신앙이나 사상 또는 인종에 대한 탄압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 용어를 교회사적 입장에서 사용할 경우에 '박해'는 중앙이나 지방 정부의 당국자(권력자) 내지는 가문이나 지역에서 일정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실천을 실정법이나 관습법의 위반으로 규정하여 이를 반대하며 탄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박해가 일어나는 데에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있게 마련이다.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의미를 확인해 보자. 이를 시험에 비유하면, 필요조건은 '응시 자격', 충분조건은 '합격 자격'으로 볼 수 있다.

19세기 조선왕조에서 진행된 천주교 박해의 근본원인으로는 먼저 당시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의 충돌'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당시 조선에 수용된 천주교 신앙은 성리학적 이론 상당부분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성리학적 태극론(太極論), 이기론(理氣論)은 그리스도교적 창조론, 섭리론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또한 유교적 오행설(五行說)은 그리스 자연철학에 기초한 그리스도교적 사행설(四行說)과 충돌되고 있었다.

그리스도교의 윤리는 성리학적 오륜 체계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조선의 지배층에서는 천주교를 멸륜폐상(滅倫廢常)으로 규정한 바가 있으며, 권철신(權哲身, 1736-1801)도 "사학에는 오륜이 없다."(邪學卽無五倫也)고 단언하면서 그리스도교적 윤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유교적 윤리와 다름을 말했다.

이러한 세계관의 차이에 따른 사상적 충돌은 '현세적 사회질서에 대한 상반된 이해'로 나타났다. 당시 천주교도들은 군주와 천주를 대비하면서 군주권 내지 왕권을 천주의 신권을 말하며 상대화시켰다.

무엇보다도 당시 천주교도들은 창조주 천주로부터 나온 피조물(被造物)

천주교도들은 창조주 천주로부터 나온 피조물(被造物)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과 평등성을 말함으로써 신분제적 권위의 상대화 작업을 수행했다.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과 평등성을 말함으로써 신분제적 권위의 상대화 작업을 수행했다. 그들은 실천적 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백정 출신 황일광(黃日光)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잘 알면서도 신도들이 자신을 교우(敎友)로 맞아들이는 데에 감격하여 자신은 현세에서도 벌써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베르뇌(Berneux) 주교

또한 당시의 신도들은 일반인과는 구별되는 색다른 삶의 방식을 신앙 취락인 '교우촌'에서 실천하고 있었다.

병인박해의 과정에서 베르뇌(Berneux) 주교를 비롯한 9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수천 명'의 신도들이 처단 당했다. 이 과정에서 리델 신부를 비롯한 3명의 프랑스 선교사들이 몇몇 조선인 신도들과 함께 중국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 살아남은 선교사들은 베이징에 주재하던 프랑스의 벨로네 대리공사에게 자신들과 자신의 동료들이 처했던 상황을 보고했다. 이에 벨로네는 조선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고 조선국왕의 폐위를 선언하면서 로즈 제독이 이끄는 해군함대를 동원하여 강화도에 대한 침략을 단행했다.

3. 그 죽음에 대한 해석

역사에 대한 해석은 근대역사학의 전개과정에서 특히 중요시되었다. 근대역사학에서는 역사란 사실과 해석의 결합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866년 조선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두 가지의 입장이 존재하고 있다.

1866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대한 해석은 우리나라 근대역사학이 성립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변화를 겪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즉, 1890년대 중반기 이래 조선에 대한 일제 침략을 경험했고, 얼마 안 가서 국가 주권의 상실을 체험한 일단의 국가주의적 지식인과 연구자들은 국가 주권의 절대적 가치와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조선의 근대사를 조명해 갔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병인양요나 제너럴셔먼호 사건, 오페르트 사건과 같이, 서양세력의 조선침입이라는 사건은 조선이란 국가의 존재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결과로 이러한 사건과 연계되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도 국가주의적 시각에서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한편, 1920년대 후반기 이래 공산주의 운동과 함께 '역사적 유물론'이 수용되고 있었다. 이들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대세력으로 자임하면서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인양요와 제너럴셔먼호 사건은 '서양 제국주의 침략' 또는 '서양 자본주의의 침략'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연계되어 죽음을 당한 조선인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되었다.

한편, 유물사관적 입장에서 전개되는 이 사건의 해석에도 몇몇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유물론적 역사 진영에서는 전제적 왕조국가에 대한 도전을 정당시하며 이와 같은 사건을 일반적으로 긍정 평가해 왔다. 전제적 왕조국가는 궁극적인 극복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1866년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의 근본 원인이 되었던 전제적 정치 · 사회 · 문화적 질서에 대한 신도들의 도전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다. 그리고 그들을 침략세력의 앞잡이로 인식하고 매도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 신앙을 제국주의 내지 식민주의의 앞잡이로 파악하려 했던 태도는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항해 시대 이후 그리스도교 선교와 결탁한 신대륙에 대한 침략에서 유래한 사건으로 생각된다. 당시 스페인 교회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시도했던 encomienda(유럽인이 인디오의 영혼을 구제해 주는 대가로 그들을 강제노역에 종사시키던 제도) 등을 현지인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非)그리스도교적인 사건으로 인해 그리스도교는 일반적으로 침략의 전구(前驅)로 인식되었다.

베르뇌 주교는 조선에 있어서 신앙의 자유는 조선사회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자유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다른 편지에서 자신들이 박해를 받아 죽더라도 신앙의 자유는 조선인 스스로가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었다. 조선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력적 개입을 반대했지만, 외교적 교섭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평화적 방법으로 담판을 통해서 중국에 천주교 선교의 권리를 보장받게 한 드 몽띠니(M. de Montigny) 같이 단호하고 헌신적인 전권대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조선의 그리스도교 운동은 신구교를 막론하고 모두가 조선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수용되고 있었다.

한 사회에서 체계가 다른 새로운 사상을 수용하게 되는 것은 그 사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18~19세기 조선은 새로운 사상과 사회의 출현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조선은 외국 선교사의 직접적 도움이 없이 스스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고자 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지역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그리스도교 신앙은 언제나 침략세력과 결탁되어 있다는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조선의 사례에도 적용할 수는 없다.

4. 순교의 의미

신앙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행위를 우리는 치명(致命)=순교(殉敎)라 하며, 자신의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을 치명자=순교자라고 한다.

'치명'이란 단어는 《주역》(周易)이나 《논어》(論語) 등의 중국 고전에서 유래한 단어였다. 《주역》에서는 곤괘(困卦)에 대한 해설 과정에서 "군자(君子)는 목숨을 내던져[致命] 뜻을 이룬다.[遂志]"는 말이 나온다.[《周易》, 〈困卦〉 第四十七, "象曰, 澤无水, 困, 君子以致命遂志."] 그리고 《논어》에서도 '선비는 (국가나 의리가) 위기를 당하면 목숨을 내던진다.'[士見危致命]고 말했다.[《論語》, 〈子張〉 第十九, "子張曰, "士見危致命, 見得思義, 祭思敬, 喪思哀, 其可已矣."] 여기에서 말하는 선비 즉 사(士)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지배 계층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주역》이나 《논어》가 저술되고, 경전으로 존중되던 당시에는 치명의 주체가 군자(君子)나 사족(士族)으로 제한되고 있었다. 그래서 '치명'이란 행위는 당시 사회에서 군자나 선비와 같은 예(禮)를 알고 실천하는 특수한 계층이 특정한 가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기희생적인 행동을 뜻했다.

치명이란 용어는 천주교의 수용 이후 교회의 용어로 차용되어 정착되어 갔다. 그런데 조선후기 대부분의 순교자들은 신분이 높지 않은 일반 민인(民人)들이었다. 지배층에게 한정되던 이 용어가 지배층의 배격을 받던 한미(寒微)한 신분의 천주학도에게 적용되고 있었다. 이는 민인(民人) 출신이 주류였던 천주교도들을 군자(君子)나 사족(士族)과 동일시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원래 순교(martyreo)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증언하다', '증거하다', '증인이 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교 박해 단계

에 이르러 교부들은 이 단어를 자신의 신앙에 대한 증언이라는 차원에서 '순교'라는 말로 번역했다. 오늘날 천주교의 역사신학에서는 순교의 개념 안에 광의(廣義)와 협의(狹義)의 두 가지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광의의 개념으로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증언 행위 모두를 순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순교라 할 때에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순교를 협의로 규정할 때에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순교자는 '실제로 죽음을 당해야 하고', '그 죽음이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초래되어야 하고',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 죽음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으로 제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순교의 배경적 사상으로 한국문화적 요소를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당시의 순교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한국문화의 어우름이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대군대부에 대한 대충대효론(大忠大孝論)이 순교를 가능케 한 힘 중의 하나였다. 이로써 한국의 순교자들은 하느님을 이해하고 섬기는 특이한 방법을 세계 교회에 제공했다. 즉, 조선후기 천주교 신도들에 있어서 천주교 신앙과 충효라는 전통사상의 결합이 순교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또한 신앙을 획득한 이후 그들이 실천했던 새로운 생활은 순교의 정당성을 설명해주는 또 다른 기제로 작용했다. 천주교의 교리는 새로운 인간관과 이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관계의 구성을 강화시켜 주었다.

한편 당시의 신자들은 그리스도교 사상이 가지고 있는 평등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신자들은 천주교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은 모두 다 형제이므로, 감히 형제를 업신여길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으로 생각했다. 여기에서 조선후기 천주교도들은 수직적 관계를 기반으로 했던 당시의 신분제적 인간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시켜 가고 있었다.

또한 현실사회에 대한 도전을 감행하고 있었다. 1866년의 박해시대 신자들, 특히 순교자들의 신앙실천과 순교는 자의식(自意識) 여부와는 상관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출처: 가톨릭 굿뉴스 갤러리
http://photo.catholic.or.kr/album/view.asp?menu=3&Page=616&id=40711&af=15

이 없이 당시의 사상과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들의 순교는 하느님을 통한 자기 존재의 확인이었다. 조선왕조가 자행했던 전근대적(前近代的) 사상통제와 신분제적 사회질서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들의 죽음은 인간의 양심과 인격에 대한 위대한 깨달음의 표현이기도 했다.

또 순교자의 죽음은 우리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출현했던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갈망의 결과였다. 그들은 신앙과 사상의 자유를 얻기 위한 전선에서 산화한 전사자이기도 했다. 그들의 순교는 단순히 신앙적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행위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박해시대 조선 천주교회와 신도들은 순교의 의미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 나갔다. 그리하여 직접 피를 흘리는 순교 이외에 일상생활을 통한 순교를 언급하여 순교의 외연을 넓혀 나갔다. 즉, 순교에 대한 협의의 이해와 함께 이를 광의로 해석하여 일상적 기도나 선행도 순교(를 준비하는) 행위로 이해되고 있었다. 이 일생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했다. 그는 순교라는 개념을 순교자의 피 흘리는 순교 이외에 일상생활에서 진행해 나가는 평생에 걸친 순교의 중요성까지 말해 주었다. 이처럼 순교의 개념은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순교의 개념이 확대 발전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르러 순교란 단어는 신앙을 위해 죽은 이들만을 지칭하는 용어로부터 일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신앙의 실체를 사랑으로 받아들여 신앙의 표현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다가 죽은 이들도 사랑의 순교자로 이해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1982년에 거행된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M. Kolbe)는 '사랑의 순교자'로 시성(諡聖)되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리스도교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인물이었다.

5. 나가는 말

병인박해 당시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나갔고, 이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강요당했다. 그들은 믿음이 곧 사랑이며 소망임을 확인했던 사람들이다. 또한 그들은 인간의 평등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순교라는 교회사적 사건은 한국사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해를 입히려던 침략과 연계된 행동으로 규정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한국사적 사건임과 동시에 한국사의 발전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었다. 그들의 소망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며, 그들은 행동으로 이를 실천하고 있었다.

오늘의 한국사는 역사적 격변기에 해당하던 1866년의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 긍정성을 평가할 단계가 되었다. 즉 1866년의 사건들은 제국주의 침략이나 자본주의 팽창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주의적 해석이나, 유물사관적 해석에 입각하여 이를 왜곡해서는 곤란하다.

천주교 순교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던 과정에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실천했던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사랑의 실천자였다. 또한 자유로운 신앙의 실천이 가능한 새로운 사회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상자유운동의 선구자였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늘의 평신도들이 병인박해 150주년을 기념하면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순교자들이 감행했던 순교의 의미가 신도 공동체 안에서만 의미를 가졌던 사건은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사회를 위해 새로운 믿음과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확실한 소망을 심고자 했던 행동이었다. 그들의 순교는 교회 안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닫힌 순교가 아니라 조선 사회 전체를 향해서 열려 있는 열린 순교였다.

오늘 우리는 150여년 전에 죽은 그러한 순교자들을 기억하고자 한다. 그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머리에 담아두는 일로 그칠 수는 없다. 순교에 대한 기억에는 당연히 그들의 모범을 따르려는 결심을 수반하고 있다. 기억은 실천을 위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우리에게는 죽음을 강요하는 박해는 없다. 그러나 마땅히 실천할 사랑이 있다. 오늘의 순교는 사랑이다. 순교자를 기억하는 오늘의 사람이라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순교자는 큰 소망을 이루려던 사람들이었다. 오늘의 신자들은 크고 바른 소망을 제시하여 이를 이루어나가기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와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순교자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이러한 결심을 다지고 이를 실천해 간다면 오늘의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정의와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평신도 연구

가톨릭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유경제 연구와 실천의 필요성

박순석 요한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교회는 시대적 징표를 읽는 예언자직 사명을 통해 미래 인류 사회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교회의 경제 윤리 가르침

경제라는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담론이며 화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왜냐하면 먹고사는 문제는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복음서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에서도 '5,000명을 먹이신 기적'(마르 6,30-44), '부자 청년과 하늘나라'(마르 10,17-27), '성전 정화'(마태 21,12-17), '탐욕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루카 12,13-21) 등 경제적인 주제들이 주된 가르침으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로부터 세워진 초기 교회 역시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가난한 사람이 없는 진보된 경제공동체를 구현하였다(사도 5,32-35).

그럼에도 교회가 경제적인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재화의 공평한 분배를 공식적으로 인류사회에 촉구하게 된 시점은 불과 125년 전 레오 13세 교황의 사회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발표를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사태〉 이후 비오 11세 교황의 〈40주년〉, 성 요한 23세 교황의 〈어머니요 스승〉, 복자 바오로 6세 교황의 〈민족들의 발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노동하는 인간〉, 〈사회적 관심〉, 〈백주년〉,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진리 안의 사랑〉은 〈새로운 사태〉의 내용을 계승 발전시키며 교회의 경제 윤리 가르침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교회의 경제적 가르침의 핵심은, 경제생활은 생산된 재화를 증가시키고 이윤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제생활은 개인은 물론 인간 전체와 인류 공동체에 공평한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적 상황의 흐름

오늘날 인류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국경을 초월한 자유무역과 금융시장에 의해 실시간 메뚜기 널뛰듯이 이익을 좇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반대로 빈부의 격차를 가속화하며 부의 보편적 분배가 아닌 거대 자본을 소유한 이들에게 급격하게 흡수되는 쏠림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자본 시장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은 1,391조 6,000억 원으로 2007년보다 33.8%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상위 10%의 평균소득은 15.2% 증가한 반면 하위 10%의 평균소득은 5.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와 같은 소득의 불균형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언론 보도와 정부 발표를 통해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제조업 산업의 후퇴로 인해 고용흡수력이 축소되는 서비스 산업 경제로 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자영업자들을 양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경제적 상황의 흐름은 고용축소와 저임금의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지면서 소비축소의 내수 부진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국가의 경제적 행복은 생산되는 재화의 양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방식과 소득 분배와 공평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간추린 사회교리, 303항)는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반추해 볼 때 우리나라 경제 현상 역시 교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목표점과 반대로 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공유경제(共有經濟, Sharing Economy)의 시도

빈부의 상황은 경제 사회적 상황의 돌출 변수와 주위 여건에 따라 급격하게 뒤바뀔 수 있다. 이는 인간은 서로 관계망을 형성하여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 경제의 부가가치로 얻은 부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대안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오래전부터 공유경제(共有經濟, Sharing Economy)의 개념으로 시도되고 있다. 초기에는 생산된 제품을 공동 소유하여 나눠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지만 현재에는 생산, 자본, 판매,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초기 교회 시작부터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부를 공평하게 나누는 공동체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750년 남아메리카에서 선교활동을 한 예수회 선교사들을 통해 실현되었고 200년 전 박해를 피해 심산유곡으로 피신한 초기 조선천주교회 교우 공동체 안에서도 삶의 공동체를 실현하였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 시스템이 구조화되어 제도의 주변부에 머무는 개인들은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교회는 시대적 징표를 읽는 예언자직 사명을 통해 미래 인류 사회의 대안적 사회를 제시해야 할 요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공유경제의 개념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여 복음화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연구와 실천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빈부의 상황은 경제 사회적 상황의 돌출 변수와 주위 여건에 따라 급격하게 뒤바뀔 수 있다.

한국평협 심포지엄1

향후 교회의 변화와 평신도의 역할[1]

정희완 요한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이 글은 지난 9월 9일 인천교구 강화도 갑곶 순교성지에서 열린 한국평신도사도직단체 협의회 하반기 연수중에 발표한 내용 가운데 일부이다. 나머지는 겨울호에 연재하려 한다.

들어가는 말

한국 가톨릭교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물론 외형적 신자 수와 한국 사회 안에서의 영향력 관점에서 보면, 한국 가톨릭교회의 현재와 미래는 그리 비관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세상의 아픔과 문제점들에 대한 예언자적 발언들과 사회참여를 통해 대외적으로 교회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종교지도자들의 지위와 영향력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풍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에 대한 정치권력의 인정과 우대의 경향, 점점 증가하는 신자 고위 공직자들과 사회적 유력인사들의 숫자들은 한국 가톨릭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커가고 있다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상일 뿐, 한국 가톨릭교회의 실제 현실의 모습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다. 한국 가톨릭교회에 뿌리 깊이 내려 있는 성직주의와 물질주의는 교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한국 교회 안에는 성직주의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다른 지역 교회들보다 더 유난히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성직주의와 그에 따른 수직적 위계주의와 권위주의의 교회 안의 만연함은 교회 안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방해하고 공동체 사목의 걸림돌로 작동되고 있다. 물론 교회 안의 토론 자리에서 성직주의에 대한 숱한 비판적 담론들이 양산되고, 성직자들 스스로도 성직주의의 폐해에 대해 자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성직주의에서 벗어나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노력들은 거의 없다. 한국 교회 안에서 성직주의에 대한 비판적 담론은 그저 수사학적 장식에 불과한 느낌이다.

1 정직하게 말하면, 이 주제는 개별 학술 논문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하나의 논문에서 학문적으로 다루기에는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 글은 주제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일종의 대중적인 방식으로 피력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엄밀한 의미에서 학술논문이라기보다는 논문의 형식을 차용한 일종의 에세이다. 넓은 맥락에서 일종의 대중 강연의 원고쯤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글에서 다루는 평신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는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 역할, 특히 교회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평신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로 좁혀서 사용한다. 세상 속에서의 평신도 역할이라는 주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삶과 문화는 물질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교회의 일들과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신앙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실천하기보다는 세속의 논리 즉 자본주의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 모습이다. 성당을 건축할 때 외형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방향, 교회 기금 마련을 위한 지나친 상업행위들, 교회 자산 운용에 있어서 주식투자와 부동산 투기의 방식들 등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행위들이 물질주의의 자본의 논리로 작동되고 있다.

한국 교회의 본당들 역시 전반적으로 생동감을 잃어가고 있다.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본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당은 그 지역에서 사는 교회의 현존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 생활이 성장하는 장소이며, 대화와 선포, 아낌없는 사랑 실천, 그리고 예배와 기념이 이루어지는 장소다."(〈복음의 기쁨〉, 28항) 사실 그리스도교 신앙생활 안에서, 교회의 기초 단위 조직으로서의 본당,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생활 공동체로서의 본당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와 같은 본당의 신학적, 사목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 속의 한국 본당들은 점점 그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본당은 그저 주일 미사만 참여하는 공간으로 그 기능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가톨릭교회(Catholicism)[2]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교회의 변화가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회 스스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교회 자신

2 가톨릭교회 연구가인 이안 린덴(Ian Linden)은 현대 세계 안에는 가톨릭교회를 바라보는 4개의 관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사람들이 가톨릭교회라고 말하면서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다양한 국가와 문화 속에서 서 있는 세계 가톨릭교회의 모습이다. 즉, 세계인구의 17.4%이며 그리스도교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톨릭교회의 모습이다. 둘째, 사람들이 가톨릭교회라는 개념을 통해 생각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신학적 관점의 교회다. 하느님 구원 계획에 의해 세워지고 성령에 의해 인도되고 있는 교회, 구원 신비의 성사들과 카리스마와 성인들과 순교자들의 모습으로 비쳐지는 교회다. 셋째, 가톨릭교회의 또 하나의 모습은 철저하게 세속의 종교적 기능을 드러내는 교회다. 교황과 로마 꾸리아로 대표되는 종교적 권력의 힘을 보여주는 지상교회의 모습이다. 넷째,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보여지는 교회다. 즉, 가톨릭교회 고유의 종교적 입장과 가치를 소유하는 그래서 세상의 이데올로기들과 세속의 가치들과 때로 충돌하기도 하는 교회다. Ian Linden, *Global Catholicism: Diversity and Change since Vatican II*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 1–2.

왼쪽부터 사회자 배봉한, 토론자 박철용, 최혜영 수녀, 황경훈, 발제자 정희완 신부

이 복음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세상의 변화들이 교회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스스로를 변화시키면서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는 일은 초기 그리스도교 시절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교회사 안에서 교회의 변화들은 결국 세상 밖에서 밀려 온 추세와 압력을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교회가 세상의 변화 특히 서구 문화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다.[3] 하지만 이 글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교회가 가져온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자신의 변화에 대한 것이다.[4]

교회는 세상 속에 있다. 세상과 교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 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는 분명 중요한 질문이다.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그 올바른 세상의 변화에 교회가 적응(aggiornamento)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세상의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를 교회가 수용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타락, 부정적 의미에서의 교회의 세속화다.

3 물론 이 문제에 대한 역사가들의 시각은 다양하다. 또 역사를 바라보는 각자의 관점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교가 세상의 변화, 특히 서구의 변화를 이루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는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이다. Rodney Stark, T*he Victory of Reason: How Christianity Led to Freedom, Capitalism, and Western Success* (New York: Random House, 2005); *The Triumph of Christianity: How the Jesus Movement Became the World's Largest Religion* (New York: HaperOne, 2011) 참조하라.

4 여기서 교회의 변화란 교회의 신학적 본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조직(system)과 제도(institution)로서의 교회의 변화를 뜻한다. 또한 당연히 이 글에서는 교회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해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조금 단순하게 말해서, 교회 구조의 변화와 세상 속에서 비쳐지는 교회의 외적 모습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해석의 차이가 교회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다. 교회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현실 교회의 모습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의 교회 변화는 타락이며, 올바른 방향의 교회 변화는 쇄신이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쇄신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세상의 부정적인 힘들, 세속의 부정적인 조류를 따르는 변화가 아니라 복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인 쇄신을 교회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교회 변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교회의 변화, 교회 쇄신의 진정한 주체는 물론 성령이다. 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교회 구성원들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변화의 노력이 쇄신을 낳는다. 교회 구성원들은 과연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를 것인지. 과연 어떻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쇄신에 참여할 것인가.

교회의 올바른 방향의 변화, 즉 교회 쇄신은 무엇을 뜻하는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패러프레이즈하면, 교회 쇄신은 결국 교회의 복음화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교회의 구조를 개혁하고 교회 구성원들이 복음화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황은 교회 쇄신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복음화의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성직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실천이 요청된다고 강조한다. 교회 쇄신을 위한 구조 개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가 성직주의(clericalism)라는 사실과, 교회 쇄신을 위한 교회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직자들의 성찰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참 묘한 아이러니다. 물론 교회 쇄신을 위해 교회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화의 소명을 수행해야 한다.[5] 그렇다면 교회 쇄신을 위한 평신도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변화와 쇄신을 말할 때, 우리는 당위성의 논리에 빠질 위험이 많다. 교회는 자비로워야 한다. 교회는 겸손해야 한다. 교회는 열린 구조여야 한다. 교회의 변화와 쇄신을 이야기할 때 숱하게 언급되는 말들이다. 너무 자주 쉽게 언급되어서 이제는 그저 말들로만 소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사실 상식적인 차원에서 다 안다. 문제는 언제나 현실의 모습과 실천이다. 변화와 쇄신을 말할 때 이상적이고 당위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한 언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쩌면 현실 교회의 모습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더 요구되는지도 모르겠다. 현실 교회의 모습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복음의 기쁨〉에서 지적하는 '무익한 비관주의'와 '패배주의'(84, 85항)와는 다른 맥락이다. 음울한 비관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져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다. 그저 냉정하게 현실 교회의 모습을 분석하고 파악한 후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자는 의미다. 물론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한 사회학적, 통계학적 분석이 그리 많지는 않다.[6] 또한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한 종교 사회

5 평신도의 역할은 성직자의 역할보다 낮은 것일까. 하느님 앞에서 모든 직무는 평등할 것이다. 교회법과 전통적 교회신학이 말하는 위계(hierarchy)는 말 그대로 법과 신학의 관점일 뿐이다. 직무의 위계일 뿐 존재의 위계는 아니다. 교황은 교황직을 수행하고, 주교는 주교직을 수행하고, 사제는 사제직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평신도의 직무는 무엇인가. 평신도는 자신의 방식으로 사도직을 수행하는가. 아니면 사도직에 참여하는가. 물론 이 논문에서 직무(ministry)와 사도직(apostolate)에 관한 신학적 해석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저 상식선에서 몇 가지 정직한 질문들을 던질 뿐이다.

6 한국 교회 현실에 대한 전망과 분석은 가톨릭 신문에서 주관하는 《가톨릭 신자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에 대

학적, 신학적 해석들 역시 많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루어지는 한국 교회의 현실들은 주로 인상비평적 시각에서 접근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것인가. 지역 교회인 한국 가톨릭교회는 세계 교회가 변해 가는 모습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한국 교회 역시 세계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가. 교회는 이 시대에 안팎으로 어떤 도전들을 받고 있는가. 교회에 대한 도전들과 변화 속에서 평신도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일까. 세상 속에서의 평신도 역할에 대해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의 역할은 무엇일까. 교회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교회 쇄신의 방향과 그 길을 모색함에 있어서 평신도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 글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의 시도다. 비록 이 글이 엄밀한 학술 논문의 형식이라기보다는 인상비평적 에세이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말이다.

미래 교회의 모습과 변화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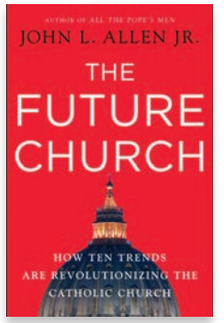
근대사회로의 이행 이후,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교회는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근대 이전의 가톨릭교회가 유럽중심의 교회였다면 근대 이후의 교회는 점점 세계 교회(world church)의 형태를 드러낸다. 물론 21세기에 들어 와서도 교회 권력의 중심은 아직도 서구교회에 있다. 하지만 신자수의 분포도에서 비서구지역의 신자수가 훨씬 많아지고, 지역 교회들의 활성화 현상들은 점점 교회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다. 남미 출신의 교황의 등장은 그 변화의 단초를 상징한다. 또한 교회 안의 위계적 질서를 강조했던 근대 이전의 교회론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하는 교회론으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은 교회 구성원들 모두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 평신도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했다. 또한 성직자의 감소 현상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 역할에 대해 새롭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대 이후 교회가 겪은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교회의 세속화 현상이다. 물론 세속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하지만 근대 이후 교회는 자신이 세상 속에 있는 존재임을 또 세상과 깊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각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데 21세기 교회가 받고 있는 가장 도전 중의 하나는 자본주의의 물질주의 영향이다. 사실, 종교의 자본주의화와 자본주의의 종교화 현상은 현대 세계의 가장 큰 도전 중의 하나다. 이런 세계 교회의 추세 속에서 한국 가톨릭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1.1. 전지구적 가톨릭교회 (Global Catholicism)

영어권의 저명한 종교 역사가인 필립 젠킨스(Philip Jenkins)는 현대 그리스도교는

한 분석보고서와 강인철 교수의 사회학적 연구서들이 거의 전부다. 강인철, 《한국 천주교회의 쇄신을 위한 사회학적 성찰》 (우리신학연구소, 2007); 《종교권력과 한국 천주교회》 (한신대학교출판부, 2008) 참조.

유럽 중심의 그리스도교에서 전 세계적 그리스도교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 교회에서 세계 교회로의 이행이 현대 그리스도교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라고 말한다.[7]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교 역사에 있어서 또 다른 큰 특징의 하나는 교회의 무게중심이 남반부(global South), 즉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 대륙의 교회에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남반부 교회의 성장은 그리스도교가 점점 성령주의(Pentecostalism)와 근본주의(fundamentalism)의 경향으로 기울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젠킨스는 주장한다. 남반부 교회의 성령주의와 근본주의의 경향에 대한 젠킨스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쟁이 있지만, 대부분의 현대 종교 역사가들은 그리스도교가 세계 교회의 방향으로 변화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오랫동안 바티칸 담당기자를 했던 미국 저널리스트인 존 앨런(John L. Allen, Jr.) 역시 자신의 책 《미래 교회 The Future Church》에서 향후 가톨릭교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10개의 트렌드를 제시하면서 그 가운데 세계 교회로의 변화를 강조한다. 알렌은 '세계 교회'라는 장을 기자다운 상상력으로 2050년 로마 바티칸에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출신 교황 빅토르 6세 교황의 일상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8] 또한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 안에서 지역 교회(local church)들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기 시작하고 개별 교회들 간의 친교를 강조하는 교회론의 등장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9]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톨릭교회가 유럽 교회에서 세계 교회로 확장됨을 알리는 시발점이었다.[10]

가톨릭교회의 세계 교회화 현상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의 산물이다. 무엇보다 가톨릭교회의 인구수의 증가가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통계학적 사실이다. 이처럼 신자수 분포도의 확산과 남반부 신자들의 증가는 전통적 유럽 중심의 교회에서의 탈피를 촉진시켰다. 또한 지역 교회들의 활성화와 토착화는 더더욱 가톨릭교회의 세계 교회화를 확장시켰다.[11]

이러한 남반부 가톨릭교회(Southern Catholicism)의 확산은 몇 가지 외형적 특성을

7 Philip Jenkins, *The Next Christendom: The Coming of Global Christian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The New Faces of Christianity: Believing the Bible in the Global Sou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참조.

8 John L. Allen, Jr., *The Future Church: How Ten Trends Are Revolutionizing the Catholic Church* (New York: Doubleday, 2009), 13.

9 J.-M. R. Tillard, *Church of Churches: The Ecclesiology of Communion*, trans. R. C. De Peaux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2); Christopher Ruddy, *The Local Church: Tillard and the Future Catholic Ecclesiology* (New York: Crossroad, 2006); Francisco F. Claver, *The Making of a Local Church* (Maryknoll: Orbis, 2008) 참조.

10 Massimo Faggioli, *A Council for the Global Church: Receiving Vatican II in History* (Minneapolis: Fortress, 2015), 291–305 참조.

11 John L. Allen, Jr., 20–23.

드러낸다. 첫째, 교회가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택하고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아프리카와 남미 신자수의 증가는 종교 영역에서 점점 기적과 치유와 초자연적 현상들에 초점에 맞춰지는 경향을 드러낸다. 셋째, 유럽에서 발생하는 세속주의(secularism)의 문제보다 다원주의(pluralism)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넷째, 교회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요청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12]

이러한 남반부 가톨릭교회의 확산은 교회 안에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교회의 리더십이 남반부 교회로 조금씩 이동하는 경향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리고 교회 안의 이슈들이 유럽 중심의 이슈들에서 남반부 지역의 이슈들로 대체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지역의 일부다처제와 주술사를 둘러싼 이슈들이 교회 안의 첨예한 문제로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교회 내부의 문제보다는 교회 밖의 문제들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가족과 성 문제에 있어서는 더 완고하게 전통적 견해를 고수하는 입장을 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반면에, 경제 정의와 전쟁에 대해서는 좌파적 견해가 더 강화되는 추세가 보인다.[13]

1.2. 성직자의 감소와 평신도 역할의 확장

남반부 교회의 성직자의 증가 추세로 인해 전세계적 가톨릭교회의 성직자수 자체는 조금씩 증가의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물질문화가 발전된 국가들에서는 성직자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사제부족 현상 때문에 유럽 교회를 중심으로 사제 독신제에 대한 재검토가 언급되기도 한다. 또 한편으로 교회는 사제들의 재분배를 통해 사제 부족 현상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아프리카 신부들의 유럽 교회에서의 활동하는 현상과 한국 교회에서 프랑스 교회로 사제를 파견하는 일종의 역 선교 현상은 그러한 추세를 반영한다.

현대 교회에서 평신도의 역할이 증대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현실적으로 사제의 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평신도의 역할 증대를 초래했다. 또한 사제들의 성 스캔들과 그에 따른 교구 재정의 파산 현상 역시 교회 안의 평신도 역할의 강화를 낳았다. 그리고 근대 이후 각 거대 종교들의 경쟁관계 특히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종교와의 경쟁관계는 교회의 많은 역량을 끌어내야 하는 필요성을 낳았다. 종교적 경쟁의 시장에서 이기기 위해 당연히 평신도의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론은 교회 구성원 모두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이러한 신학적 입장은 교회 안의 평신도의 역할에 대해 성찰하는 평신도 신학의 가능성을 낳았다. 한편으로 가톨릭교회에 조금씩 성령주의가 강화되는 현상 역시 카리스마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이러한 추세는 성직자 중심주의에서 카리스마적 평신도의 역할이 인정되는 경향을 낳았다.[14]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 역할의 확장은 때때로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본당의 관리를 둘러싼 갈등과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열린 대화와 교회 운영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그 대표적 예이다. 또한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 역할이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교회의 여성화(feminization) 경향을 낳기도 한다. 교회 안의 평신도의 영향력의 확장은 역설적으로 사제직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15]

오늘날 평신도 역할의 확장이 단순히 본당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교구 차원과 바티칸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등장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역시 신학적인 측면에서 사제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지는 성사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들에 있어서 평신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교 권력의 행사에 평신도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신도 추기경의 임명과 바티칸 고위직에 평신도의 참여를 요청한다. 바티칸의 고위 관리들이 꼭 성직자여야만 한다는 신학적 이유는 없다. 교황대사 등 교황청의 외교 사절들은 평신도 전문가들이 맡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16]

1.3. 자본주의 논리가 내재화된 교회[17]

오늘날 자본주의는 일종의 형이상학이 되고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 삶의 모든 영역들이 최종적으로 경제적 목적을 지향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정치와 사회와 문화의 영역들은 경제의 논리와 규범에 종속되고 규율되고 있다. 오늘날 경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발휘한다. 경제는 단순히 경제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삶은 경제중심주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제 자본주의는 단순히 경제 체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삶의 방식을 뜻한다.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논리가 내재화되어 있는 사회다. 자본의 논리, 경제의 논리가 우리 삶을 지배한다. 자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삶의 모든 영역을 가로지르며 자신의 논리를 확장시켜 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자본은 끊임없이 사회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인간 주체의 재구성을 통해 자신의 논리를 영구화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물질주의 논리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루카 16,13)는 성경의 가르침을 선포하면서도 실제 현실에서 교회 안의 어떤 일들을 할 때 자본의 논리를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한다. 신자 수 증가를 목표로 하는 교세 확장을 위한 행위들 안에서 자본주의의 성장주의 이데올로기가 스며들어 있음을 목격한다. 당위적 관점에서는

12 Ibid., 23–32.

13 Ibid., 32–42.

14 Ibid., 178–186.

15 Ibid., 199–213.

16 Ibid., 214–216.

17 이 부분은 필자의 논문, "복음화와 경제: 신앙의 방식 vs. 자본의 논리," 《한국그리스도사상》 22집 (2014), 42–49의 발췌 요약이다.

신앙적 가치의 소중함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현실의 장에서는 자본주의 물질주의와 적당히 타협하려 하는 교회의 모습을 여전히 본다. 교회의 자본주의화가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신앙의 논리와 상업논리는 분명히 서로 다른데도 교회와 신앙인들이 실제 삶에서 신앙의 논리보다는 상업논리에 더 익숙한 모습을 보이곤 한다.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 자신들이, 자본주의 안의 상업주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우리는 도처에서 기업화되는 교회, 상업화되는 교회의 모습과 물질적 이익에만 민감하며 욕망을 사고파는 데에 익숙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한다. 시장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소비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괴력을 가졌다. 종교 역시 소비주의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소비사회에서는 종교적 신앙들마저도 판매되고 구매되는 상품처럼 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종교적 신앙들을 상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듯이 소비한다. 영성의 상품화된다. 많은 신자들이 영성을 살아내기보다는 영성을 소비한다.

1.4. 한국 교회의 모습

한국 교회 역시 세계 교회의 추세에서 그리 벗어나 있지 않다. 다만 한국 교회 안에는 남반부의 교회와 서구 교회의 모습들이 혼재해 있다. 도덕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남반부 교회들과 비슷하게 보수적 입장과 태도를 드러낸다.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보였던 진보적 입장에서 벗어나 점점 보수적 입장과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신자 분포도에 있어서는 서구 교회와 비슷하게 신자들의 고령화 현상과 젊은층의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 보수화 현상 때문에 교회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요청도 남반부 교회와는 달리 그리 강한 편이 아니다.

한국 교회에서 점점 성직 지원자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물론 서구 교회에 비하면 여전히 성직자수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남반부 교회가 보여주는 성직 지원자의 폭발적 증가 현상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1990년대를 정점으로 성직 지원자 수는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교회 안의 평신도 역할은 아주 미약한 현실이다. 유교적 서열 문화를 중시하고 종교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한국 사회의 풍토 탓인지 성직주의의 폐해는 다른 지역 교회들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풍토 속에서 당연히 평신도의 역할에 대한 깊은 신학적 성찰이 부족하고 교회 운영에 있어서 평신도의 참여가 잘 허락되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 교회 안에는 자본주의 물질주의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 성당 건축, 성지 개발, 교회 재산의 증식, 교회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의 문제들에 있어서 신앙의 논리가 작동되기보다는 자본의 논리가 더 깊이 작동되고 있다. 또한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는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더 첨예해졌다고 볼 수 있다.[18]

18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인철, 《종교정치의 새로운 쟁점들》 (한신대학교출판부, 2012) 참조하라.

2.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의 평신도

정직하게 말하면, 가톨릭교회는 역사 안에서 오랫동안 성직자의 종교였다. 많은 신자 순교자들을 발생시켰던 초기 박해시절과, 교회 안의 직제와 직무들의 엄격한 분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초기 교회 시절과, 교계제도가 교회법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교회 안에 뿌리내리기 전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교회 안의 대부분의 영역들은 성직자를 중심으로 작동되어 왔다. 물론 긴 교회의 역사 안에서 토마스 모어 같은 세상 속에서 신앙을 증거한 훌륭한 평신도들이 있었다. 또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수행한 숱한 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 교회의 통치와 운영에 있어서, 신앙의 사유를 재현하는 교회 신학에 있어서, 교회 사명의 핵심인 복음화와 선교의 영역에 있어서, 평신도의 위치와 역할이 오랫동안 미미했던 것은 사실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평신도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결정적인 비전을 제시한 공의회였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공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평신도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상상력을 제공한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공헌의 하나다.[19] 교회 안의 평신도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신학적 상상력의 가능성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갑작스럽게 발생된 것은 아니다. 신학의 역사 안에 그 나름의 배경과 많은 신학자들의 노력들을 통해 계승된 것이다. 특히 교회의 직무들(ministries)과 사도 전래성(apostolicity)에 대한 이브 콩가르의 신학적 통찰은 평신도에 대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이해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20]

2.1. 보편 사제직, 신앙 감각, 대중 신심

평신도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신학적 성찰의 근거는 무엇보다 보편 사제직에 대한 통찰에서 시작된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헌장은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하느님 백성의 교회론은 세례성사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세례성사를 통해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함을 강조한다. 물론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편 사제직(the common priesthood)과 직무 사제직(the ministerial or hierarchical priesthood)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명확하지는 않다. 〈교회헌장〉 10항은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과 직무 또는 교계 사제직은, 정도만이 아니라 본질에서 다르기는 하지만(differ essentially and not only in degree),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각기 특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또한 〈교회헌장〉 34항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과 사명에 밀접히 결합시키신 평신도들에게 당신 사제직의 일부도 맡기시어(gives a share in his

19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들 가운데서 〈교회헌장〉 10항과 11항의 보편 사제직에 관한 진술과, 〈교회헌장〉12항의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에 대한 설명과, 〈교회헌장〉 4장에 나타나는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평신도에 대한 정의들과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전반적 정의를 포함하는 〈평신도 사도직 교령〉은 평신도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상상력을 가져오게 핵심 근거들이다.

20 Paul Lakeland, *The Liberation of the Laity: In Search of an Accountable Church*(New York: Continuum, 2003), 49-77.

교회 안에는 교구와 본당의 틀과 범위를 넘어 있는 다양한 교회 운동들(ecclesial movements)이 존재해왔다.

priestly office)"라고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들은 분명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은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정도와 본질의 차이는 존재적 차이(위계, 서열)를 뜻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기능적(역할의) 차이에 불과한 것인가. 〈복음의 기쁨〉104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좀 더 정직하게 진술한다: "직무 사제직은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봉사하시고자 쓰시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직무 사제직의 역할이 '위계적'으로 여겨진다 하여도 '이 구조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거룩함에 예속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핵심 축은 지배를 의미하는 권력이 아니라 성체성사 집전 권한입니다."

〈교회헌장〉 9항에서 언급된 신앙 감각(Sensus fidei)은 평신도 신학의 또 다른 배경과 근거가 된다.[21]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이든 믿는 이들의 신앙 감각이든 초자연적 본능으로서의 신앙 감각은 "믿음에 관한 일을 명확히 식별하며, 참된 지혜를 촉진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해 준다."[22] 모든 세례 받은 이들이 지니고 있는 초자연적 신앙 본능으로서의 신앙 감각은 "복음에 합당한 것을 인식하고, 복음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거부 할 수 있는"[23] 일종의 자율적 힘을 모든 신자들에게 부여한다. 신앙 감각이란 신학적 개념을 통해 평신도들 역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수동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신앙 감각은 교도권의 식별과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신앙 감각의 존재는 평신도들에게 현실적으로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

대중 신심(popular piety)에 대한 새로운 이해 역시 평신도 신학의 확장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종교 사회학과 문화 인류학에 있어서 종교적 왜곡과 미신적 경향을 드러내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었던 대중 신심에 대한 교회의 새로운 접근은 평신도의 신앙적 자율성에 대한 새로운 공간을 제공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중 신심에 대한 열렬한 옹호자다. 물론 교회적이고 올바로 이끌어진 진정한 대중 신심이라는 단서가 붙지만, 대중 신심은 "대중문화 속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육화되어 생겨나는 것이다"(『복음의 기쁨』, 90항). 다시 말해, "받아들인 신앙이 어떻게 한 문화 안에 구현되고 지속적으로 전달되는지를 볼 수 있게 해 준다"(123항). 대중 신심은 무엇보다 신앙 토착화의 전위적 형태다. 또한 대중 신심은 "하느님 백성의 자발적인 선교 활동의 참다운 표현이다"(『복음의 기쁨』, 122항). 대중 신심은 복음화하는 힘을 가졌다.

보편 사제직에 대한 신학적 강조, 신앙 감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대중 신심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의 경향은 신학적 측면에서 평신도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었다.

2.2. 교회 운동들(ecclesial movements)[24]

일반적으로 가톨릭 신앙생활은 교구와 본당 공동체를 중심으로 수행된다. 교회의 교계적이며 제도적인 차원(hierarchical-institutional dimension)의 핵심 조직인 교구와 본당 공동체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를 포함하는 구조다. 하지만 신학적 · 교회법적 측면에서 보면, 교구와 본당 공동체는 성직자(교구장과 본당신부)가 리더십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구와 본당 공동체에서 평신도들이 리더십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교회 안에는 교구와 본당의 틀과 범위를 넘어 있는 다양한 교회 운동들(ecclesial movements)이 존재해왔다. 수도 공동체와 더불어 이 교회 운동들은 교회의 또 하나의 본질적 요소인 카리스마적 차원(charismatic dimension)을 드러낸다. 물론 교회 운동들은 수도 공동체 운동과는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분명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교회 운동들은 몇 가지 본질적 · 내용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고유한 카리스마를 지닌 창시자가 복음에 기초한 고유한 영성과 카리스마로 신자들을 세례의 갱신으로 이끈다. 둘째, 그 공동체의 카리스마에 동의하는 모든 신자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 즉, 성직자, 수도자, 기혼자, 미혼자,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는 공동체의 형태를 지닌다. 셋째, 운동들의 제도적 구조는 매우 탄력적이고 유연해서 신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다. 넷째, 운동들은 교회의 사목적, 사도적, 복음화 사명의 쇄신을 목적으로 한다. 교회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고유한 카리스마를 실현하려 한다. 다섯째, 운동들은 신앙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교회 내부에만 머무는

21 신앙 감각에 대한 상세한 신학적 논의에 대해서는,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6); Ormond Rush, *The Eyes of Faith: The Sense of the Faithful and the Church's Reception of Revelation*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9) 참조하라.

22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 11.

23 Ibid., 103.

24 대표적인 교회 운동들은 Communion and Liberation, Cursillo, Focolare, L'Arche, Legion of Mary, the Neocatechumenal Way, Legionaries of Christ, The Community of Sant'Egidio, Catholic Scout, Opus Dei 다.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통교를 지향한다.[25]

교회 운동들의 구성적 · 형태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카리스마적 창시자, 고유한 카리스마, 공동체적 형태의 삶 또는 빈번하고 정기적인 모임, 평신도 중심의 회원, 복음에 대한 급진적인 헌신, 카리스마와 긴밀히 연결된 교육과 양성의 과정, 고유한 카리스마를 교회 생활 안으로 도입하려는 특별한 노력들 이다. 이러한 교회 운동들은 회원의 형태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평신도 교회 운동들, 성직자 교회 운동들, 또는 평신도와 성직자가 혼합된 교회 운동들. 또한 생활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독신공동체, 가족공동체, 친교공동체, 수도공동체, 선교공동체 형태로 구성되기도 한다.[26]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기점으로 교회 운동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고 많은 교회역사가들은 지적한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방식의 운동들이 있었다. 가톨릭 운동(Catholic movement)과 가톨릭 액션(Catholic action)이라 불리는 평신도 중심의 운동들이 존재했었다. 이 운동들은 분명 평신도 중심의 운동이었지만, 운동의 주도권은 교계지도자들과 성직자들이 갖고 있는 형태를 지녔다. 운동의 구성원은 평신도들이었지만 교계지도자들이 주도권을 갖는 탓에 운동의 자율성이 많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27] 1950년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평신도 신학이 활발해지고 평신도 사도직(the apostolate of the laity)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교회 운동의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새로운 교회 운동이 발생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공의회 이후의 교회 운동들은 교계와의 일치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운동에 있어서 평신도들의 자율성과 역할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주로 작동되었다.[28]

교회 운동들은 그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 성격(보수적, 진보적, 교계친화적, 엘리트주의적)을 지닌다. 하지만 이 교회 운동들은 평신도들에게 영적 은사(spritual gifts)와 직무적 역할(ministerial roles)을 활성화하는 공간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29] 또한 이 교회 운동들은 교회가 하나의 제도라기보다는 하나의 운동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교회 운동들은 결과적으로 교회 쇄신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진보적 방식이든 보수적 방식이든.[30]〈다음 호에 계속〉

25 Brendan Leahy, *Ecclesial Movements and Communities: Origins, Significance, and Issues* (New York: New City Press, 2011), 19–20.

26 Massimo Faggioli, *The Rising Laity: Ecclesial Movements since Vatican II* (New York: Paulist Press, 2016), 3.

27 Brendan Leahy, 25–33. Massimo Faggioli, *Sorting Out Catholicism: A Brief History of the New Ecclesial Movements*, trans. Demetrio S. Yocum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14), 30–44.

28 새로운 교회 운동의 양상에 대해서는 Brendan Leahy, *Ecclesial Movements and Communities*; Massimo Faggioli, *Sorting Out Catholicism*; Massimo Faggioli, *The Rising Laity* 참조하라.

29 Massimo Faggioli, *Sorting Out Catholicism*, 211–213.

30 Massimo Faggioli, *The Rising Laity*, 149–150.

휴식

안동교구 문경본당 당포공소

촬영
김정은 사라 서울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회원

당포공소는 문경본당에서 4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논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이곳에 신앙의 터전이 이루어진 것은 1926년 박기일 가별(가브리엘)에 의해서이다. 박기일은 고향 영천에서 세례를 받아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자 밀양 박씨 문중으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려고 지금의 당포로 이사를 왔다.

처음 이사를 와서는 가족끼리 공소예절을 하고 성사는 점촌 공평성당에서 보았다. 차츰 예비신자가 생기자 예비신자들과 함께 공소예절을 하려고 작은 민가 한 채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영세자가 늘어나 20여 세대가 되자 작은 집에서 공소예절을 하기가 불편해 고심하던 중 문경본당의 조동래 베드로 주임신부가 지금의 공소부지를 구입해 주었다.

건물은 신자들이 자재와 인력을 동원하여 짓기 시작해 1972년에 완공하고 문세화 신부가 축복하여 사용하다가 1997년에 지금의 조립식 건물로 재건축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지금은 매주일 20명 전후의 사람이 모여 공소예절을 하고, 매월 넷째 주에는 본당신부가 와서 미사를 집전해 준다. 〈안동교구 홈페이지에서 인용〉

- 소재지: 경북 문경시 문경읍 당포리 757-1
- 본당: 문경본당
- 전화: 054. 572. 2656(당포공소)

이야기

북한생활 체험기2

당신 손에 제 운명이 달렸으니 제 원수들과 박해자들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시편 31,16)

박정일 주교 마산교구 원로사목자, 전 마산교구장

나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드디어 남한에 간다, 신학교에 간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고 있는 기분이었다.

1954년 10월 로마 유학 시절의 박정일 주교

나의 월남을 도와줄 안내자를 소개받고 부푼 가슴을 안은 채 집으로 돌아온 나는, 월남을 언제, 어떻게 결행할 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특별히 좋은 계획이나 방법이 생각나지는 않았다. 부모님과 의논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강경하게 반대하셨던 부모님께 월남하여 다시 신학교에 가겠다는 말은 감히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평양에서 백 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벽촌에 있던 나에게는 상급생 부제님이나 다른 신학생들과 연락을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연 없는 상태였으니 참으로 고립무원의 신세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니 항상 나의 성소 문제에 대하여 같이 이야기하며 힘이 되어준 만만한 누이동생만이 나의 의논상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

둘이서 치밀하게 짠 계획은 이러하였다. 해주까지 가는 차표는 여자인 누이동생이 사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청년 남자인 내가 해주 가는 기차표를 사는 것은 월남의 의심을 받을 위험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누이동생의 사진을 한 장 가지고 가기로 하였다. 혹시 도중에 불심검문을 받게 되면 해주에 이 약혼녀를 만나러 간다는 등 둘러대기 위해서였다.

월남 시도와 실패, 투옥

드디어 결행의 날이 다가왔다. 1950년 2월 26일으로 기억한다. 부모님에게는 어디 좀 다녀온다는 말씀만 드리고 집을 떠났다. 기차역에서는 누이동생만이 나를 배웅하였다. 서평양역이었다. 그때 떠나는 나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던 동생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그러나 눈물을 흘린 것 같지는 않다.

해주까지의 주행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다만 여러 가지 상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인가 빨리 해주에 도착한 것 같은

숭인상업학교 교사: 박정일 주교가 1941년에 입학하여 1944년 12월에 졸업하였다.

느낌이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해주까지의 여행은 순조로웠다. 불심검문도 없었고, 제일 걱정되었던 해주역 출구도 무사히 통과하였다. 역을 빠져나오는 순간, 반은 월남을 성공한 기분이었다. 곧바로 소개받은 교우 집을 찾아갔다. 그날 저녁에는 나를 월남시켜 줄 안내자를 만나지는 않았다. 단지 다음날 해질녘에(몰래 38선을 넘는 것이니 당연히 저녁 시간을 택한 것이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는 말만 듣고 잠자리에 들었다. 신심이 피곤했던 탓인지 숙면하였다.

다음날 약속시간이 되어 안내자를 만나 38선을 향해 해주시 주변까지 말없이 걸었다. 나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드디어 남한에 간다, 신학교에 간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고 있는 기분이었다. 약 30분쯤이나 걸었을까, 안내자가 "여기에 볼일이 있으니 잠깐 들렀다 가자." 하며 어떤 큰 집 앞으로 다가가는 것이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무슨……. 빨리 갑시다." 하며 독촉하였으나 그는 이미 어떤 집 앞으로 다가가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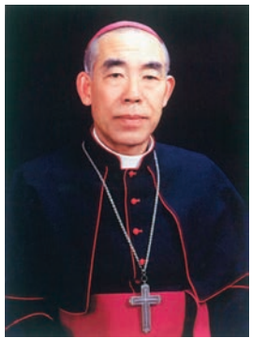
그런데 내가 영문을 모르고 한걸음 문간에 발을 내딛는 순간, 문이 닫히고 5~6명의 젊은 보위부원(북한 경찰관)들이 내 주위에 모여드는 것이었다. 안내자가 나를 남한이 아닌 경찰서로 안내한 것이었다. 눈앞이 캄캄하고 이럴 수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며 한없이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그 당시 38선 주변에는 월남자들을 등쳐먹는 사기꾼 안내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긴 했지만 나에게 그 일이 닥칠 줄이야…….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경찰들은 나를 무릎을 꿇게 하고 "나쁜 자식!', '남한의 스파이 녀석! 무슨 비밀을 가지고 남한에 가려고 하느냐?" 등 갖은 욕설을 다 퍼부으며 발로 차고 구타하기 시작하였다. 시랑이들 무리에 둘러싸인 순진하고 무력한 양의 모습인 나 자신이 연상되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그러다가 "자 이제 그만하고 내일 보자." 하며 나를 좁은 유치장 감방에 넣었다. 나는 "이제 그만하고 내일 보자!" 하는 그들의 말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모른다. 이제 잡혔으니 신문을 받게 될 때에 무엇을 어떻게 답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보위부원들은 나를 구타하고 욕을 퍼부었지만 나의 신분과 월남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오늘 밤은 자지 않고 밤새 내일 있을 신문에 대비하여 준비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갑자기 "야, 일어나!" 하는 고함소리에 놀라 눈을 뜨니 이미 훤히 밝은 아침이었다.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밤새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자버렸으니…….

구타와 신문, 그리고 석방

그들은 나를 해주 시내에 있는 '38 정치보위부' 감방에 감금하였다. 당시 월남하다 잡힌 사람들만을 취급하는 유치장이었다. 우선 무서운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수감자들은 교도관들이 다니는 복도를 등지고 벽을 향하여 계속 침묵 속에 앉아있어야 했다. 그리고 가끔씩 불려나가 신문과 취조를 받았다.

감방에서 주는 음식은 그야말로 음식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어서 처음에는 먹을 수가 없었다. 찬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쌀알이 두 세알 밖에 보이지 않는 뜨물 같은 불결한 것이었다.


현재의 박정일 주교

처음에 내가 감방에 들어가니까 옆에 앉았던 사람이 무어라고 귓속말을 거는 것이었다.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점심때에 밥이 먹기 싫거든 나를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라고 했는데 점심때가 되어 내가 밥을 먹지 않고 그냥 놓았더니 훔치듯이 가져다가 후루룩 먹어 버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2~3일이 지나고 나니 그 밥이 그리 맛있을 수가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니 얼굴은 창백해지고 체중도 많이 줄었다.

그러던 며칠 후 나는 불려나가 첫 신문을 받게 되었다. 출생에서부터 해주에 와서 감방에 들어오기까지를 소상히 묻는 것이었다. 나는 묻는데 대하여 사실대로 솔직히 다 이야기하였다. "평남 평원군 동송면 청룡리에서 태어났고, 무슨 학교, 무슨 학교를 다녔고,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사제가 되기 위하여 1948년 9월에 덕원 가톨릭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런데 1949년 5월에 덕원 신학교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사제가 될 수 없어서 사제가 되기 위해 남한으로 가는 길이었다……."

거기까지는 내가 진술하는 대로 잘 받아 적었다. 그런데 문제는 해주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어디서 잤느냐 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잤다."고 강변하였다. 숙박한 교우 집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면서(3월초에 해주는 상당히 춥다.) 얼굴을 발로 차며 솔직히 고백하라고 다그친다. 신문관은 의자에 앉고 나는 바닥에 꿇어앉아 있었다. 그러나 어떤 교우 집에서 잤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솔직히 이야기하라는 강요를 받으며 "밖에서 잤다."고 한참동안 실랑이를 하고 나서야, 그는 할 수 없다는 듯이 내가 이야기한 대로 적고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하면 너는 여기서 죽는다!"고 협박하면서 나를 감방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4~5일 후에 다른 신문관이 다시 신문을 하는데 전번의 기록을 읽어가며 재확인을 한다. 그러면 그때마다 "밖에서 잤다."는 대목에서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는데, 나는 그때마다 첫 번대로 고집하였다. 그러면 또 한바탕 쥐어박히고 얻어맞아야 했다. 같은 신문을 세 번 받았다고 기억된다. 마음이 약해졌다. '저놈들이 다 알고 있는데 공연히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사실대로 이야기해 버릴까 하고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었다.

그런데 4월 말경에 다시 네 번째로 불려나갔다. 그러나 한 번 더 버티자 하는 심정으로 온 힘을 다해 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며칠 후에 "박정일!" 하고 부르더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다. 고향까지의 버스비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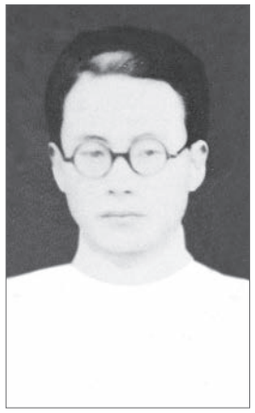
5월 3일이었다고 기억한다. 화창한 날씨에 하늘도 맑았다. 2개월 며칠만의 출감이었다. 눈이 부시다. 사람들은 얇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나는 2월 말에 입었던 옷 그대로, 두꺼운 오버 코트에 털모자……. 그러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힐긋힐긋 보긴 하지만 별로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 시대의 해주 사람들은 나와 같은 모습의 사람을 보면 으레 "감방에 갔던 사람이군!" 하고 치부하였던 것이다.

감방 친구에게 대세를 주다

나는 그 길로 해주에 산다는, 나보다 먼저 출감한, 감방 안에서 알게 된 '한 대단한 친구'(그런 인상을 받았던…….)를 찾아갔다. 자기의 집이 해주이니 다음에 출감하면 한번 들리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터라 어렵게 그 친구(!)의 집을 찾아서 그를 만났다. 그런데 뜻밖에, 그는 내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허름한 집에 혼자 있는데 건강이 매우 안 좋아 죽음이 멀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몇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네고 나서 대세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느님을 믿겠느냐고 물었더니 순순히 믿겠다고 답을 하였다. 기쁜 마음으로 간단히 4대 교리(세례를 받기 위해 적어도 알아야 하는 4가지 주요 교리, 즉, 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를 설명하고 세례를 주었다.

나는 그 길로 버스를 타고 고향 길을 재촉하였다. 해주에서 고향까지는, 옛날의 버스길로는 매우 먼 길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숙식을 어디서 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중간에 사리원을 지나면서 그곳 본당을 방문한 기억은 뚜렷하다. 당시 본당신부님이 전 안드레아 신부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한다. 신부님께서는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점심을 사주셨다. 아마 신학생이 월남하다가 고생했다고 측은한 생각을 하셨을 것이다…….

전덕표 안드레아 신부님은 1946년 27세의 젊은 나이에 보좌신부로 사리원본당에 부임하여 연세 높은 본당신부를 잘 보좌하며 북한의 정치보위부의 감시 하에서 지혜롭게 사목을 하시다가 6.25 발발 후 10월에 정치보위부에 끌려가 혹독한 전기고문을 받고 살해되어 순교의 길을 걸으신 훌륭한 사제이시다. 현재 전 신부님은 '근 · 현대 신앙의 증인'으로서 "하느님의 종 홍용호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대상자 명단에 올라 계신다. 이른 시일 안에 시복의 영예를 누리시게 되기를 기원해 마지않는다.


전덕표 신부

"부모님, 죄송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집에 도착한 나를 아무 말씀 없이 맞아주셨다. 꾸지람도 야단도 안 하셨다. 나도 해주 유치장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히 말씀드리

김충무 신부: 본래 만주의 연길교구 사제로 피난하여 평양교구에서 사목하다가 6· 25 때 12월에 피난하였다.
박정일 주교가 피난길에 해주에 도착하여 38선을 넘으려고 할 때 우연히 만났다. 국군이 피난민들을 북으로 돌려보낼 때 함께 38선을 넘을 수 있었다.

지 않았다. 본래 우리 가족은,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필요한 이야기나 하고 집안에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이다.

후에, 동생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지만, 내가 해주에서 체포되었을 때 집에서는 난리가 났던 모양이다. 경찰에서 조사가 나오고 아버님이 경찰에 불려가고 등……. 그때에 부모님이 얼마나 큰 심적 고통을 겪으셨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사제가 된다고 신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이번 일이 있기까지 부모님께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안겨드렸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월남에 실패하고 해주 '38 정치 보위부'에서 2개월 동안의 유치장 생활에서 풀려나 피곤한 몸으로 고향 집으로 돌아간 것이 1950년 5월 10일경이었다. 얼마 동안은 막막하여 아무 생각도 계획도 없이 피곤한 몸을 추스르며 무료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나의 실패나 잘못(!)을 꾸지람하지도 않고 잘 돌보아 주었으므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항상 '과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제의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세월은 빨리 흘렀다. 6월이 다 가던 어느 날, 6· 25 발발 이틀 후, 장에 가셨다 돌아오신 할아버지께서 "남조선과 전쟁이 일어났단다." 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이었다.

이제 남조선에서 북한으로 쳐들어올 터이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공산치하에서 시달림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기뻐하셨다. 사실, 8· 15 해방 이후 북한 신자들은 공산정권의 감시를 받아가며 움츠리고 살아왔다. 우리 집은 숙천읍(평안 남 · 북도 경계에서 약 40킬로미터 남쪽에 있는 경부선 역)에서 동쪽으로 8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산골이라 라디오도 없이 바깥소식에 매우 어두웠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며칠 후 다시 장에 갔다 오신 할아버지께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계속 남진하고 있대." 하시고는 "이 공산당 놈들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시며 분개하셨다. 사실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하고 북한 공산정권이 수립되면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많이 속아왔다. 그들이 줄곧 종교자유, 모든 인민의 평등, 평화를 부르짖었지만 실지는 그와 반대였기 때문이다.

6· 25가 발발한 후 1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면서 인민군이 계속 남진한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참담한 심정이었다. 생각하고 믿었던 바와는 전연 다른 방향으로 정세가 흘러가고 있으니…….

또한, 라디오도 없고 신문도 없는 벽촌이라 전세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 길이 전연 없어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다. 다만 유엔군과 국군이 북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풍문으로만 듣고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38선 전역에 걸쳐 남침을 시작하였다. 이에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하여 북한의 공격을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동년 7월 7일 한국에 유엔연합군 파견을 결정하였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서울을 수복(9월 28일)하고 10월 19일에는 평양을 점령하고 계속 북진하였다. 그런데 그때에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여 대공세를 취하며 남하하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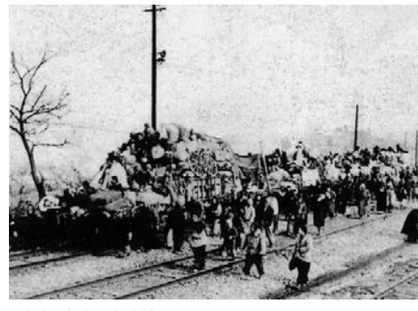
피난길에 연로한 아버지를 업고 강을 건너는 아들.

그리고 가끔 미군 군용기가 상공을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평양을 폭격하는 폭음소리를 들으면서 전세를 짐작할 뿐이었다. '이제야 공산정권이 끝나고 새로운 미지의 세상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부푼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한 가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북으로 도주하는 북한 정권이 모든 청년들을, 적령과 상관없이 무조건 강제로, 군인으로 징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징집을 당해 끌려가다 탈출하다

경찰들이 불시에 마을을 습격하여 청년들을 체포하여 입대시키곤 하였다. 그때에 나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고향에서 약 8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외조모 댁에 가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들이 불시에 마을에 들이닥쳤다. 갑자기 숨을 곳이 없어서 나와 친구 한 사람이 가까운 사과 움에 들어갔다가 붙들리고 말았다. 그날 밤 우리 둘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묵고 숙천으로 끌려갔다. 그런데 도중에, 내가 잡힌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아버지께서 끌려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귓속말로 "지금 유엔연합군과 국군이 북진하고 있단다." 하고 귀띔해 주셨다. 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길을 걸었다. 그때가 유엔연합군과 국군이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할 때였다.



피난 기차: 박정일 주교도 영등포에서 대구까지 2일간 이와 같은 기차를 탔었다.

다음날 우리는 영유(숙천에서 약 10 킬로 남쪽)에 있는 어떤 폐광 속에서 형식적인 신체검사를 받고(당시 징병검사를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었던 모양이다.) 우리는 모두 북쪽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약 13~14명 정도였다고 기억한다. 한 명의 경찰이 총을 메고 우리를 압송하였다. 하루 종일 행진하는 동안 만감이 교차하였다.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께서 귀띔해 주신 말씀을 명심하며 끝까지 끌려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녁때쯤 되어 내 고향에서 멀지 않은 국도를 지나가게 되었다. '내가 이곳 지리를 잘 알고 있으니 여기에서 도망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도망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으로 도망할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마침 저녁때쯤 되었을 때에 한 우물가를 지나게 되었다. 하루 종일 걸어서 모두 피곤한 터라 "여기서 물 좀 마시고 갑시다!" 하고 우물가에 모여서 물을 마시며 웅성거리는 동안에 어렵지 않게 혼자서 도망할 수가 있었다. 나는 거기에서 약 4킬로미터 되는 곳에 이모님 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기회가 좋았다.

다음날 새벽 나는 산으로 올라가 피신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모님 댁에 도착하니 이모님은 깜짝 놀라시며 "지금 동리 청년들이 모두 잡으러 다니는 경찰을 피하여 높은 뒷산에 올라가 숨어있으니 너도 거기 같이 가있어라." 하시는 것이었다. 다음날 새벽 나는 동리 청년 한 사람의 인도로 산으로 올라가 동리 청년들과 함께 피신 생활을 시작하였다. 1주간을 거기에서 지냈다.

밤에는 밭가에 파놓은 작은 구덩이(참호) 속에서 자고, 낮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 경찰이 잡으러 오는가 망보는 것이 일과였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우리는 보기 드문 전쟁의 장관을 목격하였다.

갑자기 유엔군 수송기 5~6대가 날아오더니 숙천 앞벌에 낙하산을 투하하는 것이었다. 낙하한 20여 명의 병사가 지상에 내리자 바로 흰 연막을 치고 총을 쏘며 숙천읍으로 진격하는 것이었다. 약 5분 간격으로 같은 낙하산 투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대포와 지프차를 투하하였다. 수송기들이 우리가 있는 산보다도 낮게 날고 있었으니 참으로 장관이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군인의 낙하산 하나가 펴지지 않는 것을 보았는데 다음 날 하산하면서 나무에 걸려 죽어 있는 병사를 목격할 때에 매우 마음이 아팠다. 다음날 나는 숙천에 사시는 외숙모님을 뵙고 고향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호에 계속〉.

배움

인문학 강좌

삶의 도리와 천주가사 〈션죵가〉

김문태 힐라리오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션죵가〉는 죽을 운명에 처한 사실을 잊고 세속의 헛된 욕심만을 탐하다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육신을 극복하여 선종하길 권고하는 노래다.

사진: 오마이뉴스 손현희 기자

선종(善終)은 글자 그대로 착한 죽음 내지 거룩한 죽음을 의미한다.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일생을 마친다는 선생복종(善生福終)의 준말이다. 천주교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이 고유용어가 들어간 천주가사가 바로 〈션죵가〉다. 필사본으로 전해오는 《박동헌본》 〈션죵가〉에는 '최도마신부져술'이라는 표기가 부기되어 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작품이 최양업 신부의 친작이냐, 아니면 신심이 깊고 교리에 해박한 어느 신자가 창작하여 최양업 신부에게 그 공을 돌렸느냐 하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션죵가〉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뉜다. 초반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죽을 운명인데도 헛된 욕심을 부리다 짧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으므로 복된 죽음을 맞이하길 촉구한다. 이어 중반에서는 병들어 죽는 순간을 생각하여 후회하지 않는 선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종반에서는 장례와 묘지와 시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죽음의 비참함을 부각시킴으로써 육신을 극복하라고 권고한다. 즉 〈션죵가〉는 한시적인 인간의 운명, 허망한 삶을 극복하기 위한 마귀 · 세속 · 육신 극복과 계명 준수,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이겨내기 위한 육신 극복을 노래하고 있다.

〈션죵가〉의 작자는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삶을 대비함으로써 선종의 방도를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션쟈들은 이세샹을 찬류쇼로 알앗스며 (선자들은 이세상을 찬류소로 알았으며)
나그닉로 지내엿고 톄음지곡 잇ᄂᆞᆫ고로 (나그네로 지내었고 체읍지곡 있는고로)
삼구를 더당ᄒᆞ고 당ᄒᆞᆫ최ᄉᆞ 인닉ᄒᆞ며 (삼구를 저당하고 당한처사 인내하고)
십계ᄉᆞ규 열심슈계 텬쥬계명 직힌고로 (십계사규 열심수계 천주계명 지킨고로)
세샹옥을 버셔나셔 쥬모ᄃᆡ젼 즐거울ᄉᆞ (세상옥을 벗어나서 주모대전 즐거울사)

예부터 선자는 현세를 귀양살이하는 찬류소(竄流所)로 여겼다. 따라서 선자는 잠시 머물다 떠날 나그네처럼 현세에 집착하지 않고 살았다. 또한 선자는 현세를 눈물의 골짜기인 체읍지곡(涕泣之谷)으로 간주하는 한편, 세상의 감옥으로 여겼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본향으로 돌아가 천주 앞에 서기 위한 여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현세에서 삼구(三仇)와 맞서 싸우고, 현실의 고통을 인내하며, 십계명과 사규(四規)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읊는 삼구는 영혼의 세 가지 원수로서 마귀와 세속과 육신을 지칭한다. 인간을 죄로 유인하는 마귀,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찬 세속, 그리고 그릇된 욕망과 감정에 치우친 육신이 바로 맞서 싸워야 할 원수인 것이다. 〈션죵가〉에서는 그중에서도 특히 육신이 대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만큼 추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선종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천주로부터 받은 십계명과 교회가 신자들에게 부과하는 사규를 준수하라고 노래한다. 사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에 미사 참례, 그리고 1년에 한 번 고해성사와 영성체 등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선자의 태도는 죄를 피하고 덕을 닦는 피죄수덕, 평생 선을 행하는 평생위선, 선을 행하여 공을 세우는 행선입공의 조건이자 세목이었다. 이는 곧 사람이 현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었다. 그런 연후에 선자는 괴로운 옥에서 풀려나 천주와 성모를 만나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하였던 것이다.

천당을 그리워했던 신앙 선조들의 삶을 보여주는 천당도.
천당은 후세가 아니라 현세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
출처: 가톨릭신문
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270362

악쟈는 이세샹을 영곳쇼로 경영ᄒᆞ야 (악자는 이세상을 영거소로 경영하여)
부귀영화 만히쓰고 빈궁쟈를 모만ᄒᆞ며 (부귀영화 많이쓰고 빈궁자를 모만하며)
교오간인 미ᄉᆡᆨ분노 탐도질투 히ᄐᆡ홈은 (교오간인 미색분노 탐도질투 해태함은)
긔희ᄯᆞ라 힝ᄒᆞ다가 부지불각 죽ᄂᆞᆫ 째에 (기회따라 행하다가 부지불각 죽는때에)
세샹영복 다ᄇᆞ리고 흑마즁에 죵이되어 (세상영복 다버리고 흑마중에 종이되어)
령혼육신 써난후에 머무ᄂᆞᆫ바 육신이라 (영혼육신 떠난후에 머무는바 육신이라)

반면에 악자는 현세를 영원히 사는 영거소(永居所)로 여겼다. 그러므로 악자는 부귀영화와 세상의 영원한 복을 추구하며 살았다. 악인이 자신의 뜻에 따라 지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일곱 가지 죄인 칠죄종(七罪宗)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 인색, 음란, 분노, 식탐, 질투, 나태에 빠질 수 있는 약한 존재다. 그러나 선인은 악인과 달리 칠죄종을 칠극(七克)으로써 넘어섰다. 즉 교만은 겸손으로, 인색은 은혜로, 음란은 정결로, 분노는 인내로, 식탐은 절제로, 질투는 관용으로, 나태는 근면으로 대처하여 죄에서 벗어났던 것이다.

악자의 삶은 이 노래를 향유하는 이들에게 반면교사이자 타산지석이었다. 특히 〈션죵가〉의 작자는 악자가 삼구 중 육신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성경』의 "육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의 관심사는 하느님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느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로마 8,6-7)라는 구절을 그 기반으로 삼고 있다. 결국 악자는 자신의 이득에 따라 살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을 맞이하여 흉한 마귀의 종이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 하였던 것이다.

〈션죵가〉는 죽을 운명에 처한 사실을 잊고 세속의 헛된 욕심만을 탐하다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육신을 극복하여 선종하길 권고하는 노래다. 마귀, 세속, 육신이야말로 인간을 죽음으로 이끄는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면은 추악하고 천한 임종과 시체와 묘지의 세밀한 묘사를 통해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장면을 세밀하게 그림으로써 삼구를 극복해야 하는 당위성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악마의 손에 떨어질 세속과 육신에 집착하지 않고, 영혼길을 잘 닦아야 선종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죽으면 썩어 없어질 한시적인 육체보다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영구적인 영혼을 구하는 데 힘써야 함을 사실적 묘사를 통해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션죵가〉는 잠시 머물다 떠날 현세와 썩어 없어질 육신을 극복하라고 강조함으로써 초기 교회의 신자들이 천주를 증거하며 순교하는 데 있어 든든한 지지대가 되었을 것이다.

의미 있는 죽음과 선종을 위한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관심은 비단 천주가사가 창작되었던 한국 천주교회 초기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지만 정신적 가치 부재의 시대, 물질주의 시대가 된 오늘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션죵가〉는 천주교 신자와 비신자들에게 공히 무엇을 위해 어디에 어떻게 투신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돌려야만 하는 당위성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령화와 자살과 낙태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나침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선종이라는 교회의 가르침을 묵상함으로써 오늘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생활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아가 죽음이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죽음, 심판, 천당, 지옥이라는 사말교리(四末教理)와 이를 기반으로 한 천주가사를 오늘 곱씹는 까닭이다.

선종이라는 교회의 가르침을 묵상함으로써 오늘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생활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수도회 영성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재속회

하느님 안에서 한마음과 한뜻이 되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김용성 보니파시오 아우구스티노 재속회 회장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라. 입을 다물려거든 사랑으로 침묵하라. 말을 하려거든 사랑으로 말하라.

성 아우구스티노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나이다.
내 안에 님이 계시었건만, 나는 밖에서, 나는 밖에서 님을 찾아,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 속으로 더러운 몸을 쑤셔 넣었습니다.
님은 나와 같이 계시었건만, 나는 님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고백록 10권 27장)

아우구스티노 성인(354-430년)의 고백처럼, 길고 길었던 방황과 의심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인은 이후의 삶을 하느님을 향한 여정에 투신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공동체'를 통한 '하느님으로의 여정'이었습니다. 391년 사제로 서품된 후 북아프리카 히포에 수도 공동체를 설립하였고, 동료 수도자들을 위한 '수도 규칙서'를 저술하였습니다.

규칙서는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할 것이니,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첫째가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모여 있는 첫째 목적은 한 집 안에서 화목하게 살며, 하느님 안에서 한마음과 한뜻이 되는 것입니다."(규칙서 1,1-3)로 시작합니다.

성인은 자신이 세운 수도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이상(理想)이 실현되기를 바랐습니다. 즉, 모든 형제들이 살아있는 총체로서 더욱 긴밀히 결합되는 공동체, 수도회의 첫째가는 사도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공동체 생활'인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수도회의 제1의 사도직이 '공동체 생활'이라는 말은, 이웃에 대한 봉사와 사랑의 중요성을 축소시키려는 뜻이 아니라, 봉사의 기초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내적 뿌리가 공동체 안에 깊이 심겨져 있지 않으면, 또한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투신하지 않는다면, 또한 하느님께서 수도자들에게 주신 이웃으로 주신 동료 수도자들에 대한 사랑이 공동 전례, 공동 식사, 휴식과 활동에서 올바로 구현되지 못한다면, 이웃에 대한 헌신은 그 기초가 흔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재속회는 성인의 영성을 삶 안에서 실현하고자 약속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수도자나 성직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완성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는 길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생활을 택하고, 어떤 이들은 세상에 머물면서 동정을 지키거나 독신생활을 하면서 가난과 순명의 삶으로 수도자처럼 복음적 권고에 따라 살기도 합니다.

수도회 가족은 이 모든 이들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그 목적은 성인의 영적 인도와 가르침 아래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가족 구성원인 우리 모두는 각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성인께서 이미 당신의 저서와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상, 곧 한마음과 한뜻으로 오직 하느님께로만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바치도록 초대된 것입니다.

올해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한국 진출 31주년입니다. 본 수도회 진출의 목적은 수도회 영성과 정신을 한국에 소개하고, 성소자 발굴 및 양성, 한국 교회 내 아시아 지역 선교 참여와 더불어 평신도들에게도 본 수도회의 영성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와 교회가 전례 없는 규모의 변화를 겪는 중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힘과 영양을 주는 평신도 신심단체들 또한 새로운 영성과 길을 찾고자 합니다. '시간적으로 가난한' 이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신앙을 나누며 남들에게 알맞은 봉사를 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발굴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신도들에게 수도회의 영성이 매력 있는 형식으로 소개되고, 더 나아가 삶에 적용이 된다면 평신도들이 아시아 복음화 사업에 밑거름이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수도회에 소속된 평신도 단체 회원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주고, 또 자기 양성을 위해 그들의 생활방식과 적당히 적용되는 도구를 마련함으로써 회원들은 이 세상에 아우구스티니안 영성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성인의 다음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곧 우리 재속회가 추구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라. 입을 다물려거든 사랑으로 침묵하라. 말을 하려거든 사랑으로 말하라. 남을 바로잡아 주려거든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어라. 용서하려거든 사랑으로 용서하라. 그대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사랑의 뿌리가 드리우게 하라."

- 동인천 수도원 아우구스티노 재속회: 매월 첫째 주일 (문의: 032-761-0768, 0781)
- 강화 수도원 니콜라오회: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문의: 032-932-8820)
- 모니카회 모임: 매월 3번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문의: 010-2717-8186) [장소: 성바오로 논현서원, 7호선]
- 리타회 모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뚝섬 (문의: 010-9286-3860)
- 연천 착한 의견의 성모 재속회: 매월 3번째 토요일 10시(문의: 010-5665-3860)

영화 속 '인간과 세상'

거인 혹은 소인을 상상을 하는 이유
마이 리틀 자이언트

이대현 요나 국민대 겸임교수 · 영화평론가

**거인과 소인을 만나는 이야기는 단순한 모험이나 호기심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그것을 통해 인간세상을 비춘다.**

가족, 판타지/ 2016. 08. 10/ 117분/
전체관람가/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세상 어디엔가 우리와 똑같은 존재이지만 크기가 다른 거인 혹은 소인의 세계가 있다."

이런 상상은 인간의 환상과 모험, 호기심과 공포의 산물이다. 공포는 거인의 물리적 힘과 야만성에 근거를 두고, 호기심은 모든 것이 축약된 소인들의 유사성에 있다. 아마 '인형'이 그 변형일 것이다.

이런 것들 역시 인간이 제멋대로 설정한 '편견'이다. 실제 거인의 존재와 야만성에 대한 어떤 근거도 없다. 소인 역시 마찬가지다. 상상으로 그들의 존재를 설정하도는 거인에게 가지고 있는 인간 자신의 공포심을 그들에게 떠넘기고, 대신 거인이 가진 강자로서의 희열과 우월감을 맛보려 한다.

그러므로 상상과 허구인 동화나 소설일망정 인간은 거인보다는 소인을 만나고 싶어 한다. 그게 훨씬 즐겁고, 안심이 되고, 존재감도 커지니까. 조너선 스위프트의《걸리버 여행기》에서 걸리버는 이 두 세계에서 공포와 환상을 모두 경험했다. 영국 동화작가 메리 노튼의 판타지 소설《바로우어즈》가 원작인 일본 애니메이션 〈마루 밑 아리에티〉에서 소년 쇼우는 엄지만한 소녀 아리에티를 만났다.

거인과 소인을 만나는 이야기는 단순한 모험이나 호기심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그것을 통해 인간세상을 비춘다.《걸리버 여행기》에서 소인국 '릴리퍼트'의 인재등용은 18세기 영국이고, 거인국의 이성적 능력은 있지만 결코 이성적이지 않은 추악한 행동들 또한 인간의 오만과 이기심과 독선의 풍자이다.

〈마루 밑 아리에티〉에서 아리에티 가족은 진심으로 돌봐주고 지켜주려는 쇼우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뿌리치고 강 건너 인간의

영화 속 '인간과 세상'

눈에 띄지 않은 곳으로 떠난다. 우리는 사랑이란, 보호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다른 생명체의 자유를 빼앗고 삶을 파괴했는가. 그들을 울타리에 가둬놓고는 그것이 문명이고, 안전이며,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거인이나 소인을 만나는 환상의 여행이 신나고, 스릴 넘치고, 즐겁지만은 않은 이유다.

로버트 달의 동화 〈마이 리틀 자이언트〉의 주인공인 고아 소녀 소피에게도 거인과의 만남은 공포로 시작해 모험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세상을 비판하고 풍자한다. 처음 다른 거인들에 비해 키가 작은(그래도 7미터) 꼬마 거인이 소피를 잡아온 이유부터 그렇다. 인간은 입이 싸다. 그래서 거인을 보면 소문내 사람들로 하여금 잡으러 오게 만든다. 숨어 사는 이유 역시 인간들은 단지 덩치가 큰 거인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마치 신기한 동물 취급을 해 우리에 가두어 놓고는 구경거리로 삼는다. 인간은 유일하게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이상한 동물이다.

꼬마 거인은 강조한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인간세상과 귀신세상이 다르지 않듯이, 거인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오히려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마이 리틀 자이언트〉는 '꿈'을 선택했다. 유일하게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큰 귀로 세상소리를 다 듣고, 아이들을 사랑해 소피가 '선꼬거(선량한 꼬마 거인)'라고 부르는 그는 꿈을 채집해서 밤마다 몰래 창문으로 다가가 아이들에게 그것을 불어넣어 준다.

꼬마 거인이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기 위해 채집한 꿈들, 그것을 담은 유리병에 맞춤법도 맞지 않게 써서 붙여놓은 짧고 단순하면서도 흐뭇하고 감동적인 설명이야말로 이 작품의 백미다. 로버트 달을 왜 '20세기 위대한 동화작가'라고 일컫는지 알게 해준다. 그 꿈이 없었다면 〈마이 리틀 자이언트〉는 향기도, 생명도 없는 뜬구름 같은 상상으로 끝났을 것이다. 인간세상에 희망을 비추는 환상과 모험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 꿈으로 소피는 '깜찍한 계략'을 세워 식인거인들이 잡아먹으려는 아이들을 구하고, 소피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행복한 삶을 시작한다. 이 기발하면서도 재치 넘치는 동화를 상상력, 판타지, 그리고 휴머니즘의 대가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섬세하고 창의적인 영상언어와 감동적인 스토리로 재창조해 우리에게 보여준다.

스필버그는 글로 구체화한 꿈의 세계와 꼬마 거인의 마음을 자기만의 다양한 빛의 언어로 시각화한 환상과 느낌으로 바꾸었다. 휴머니스트답게 동화가 말하고 싶었던 인간세상에 대한 풍자와 비판보다는 기존의 외계인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바꾼 〈ET〉가 그랬듯이, 서로 다른 세상인 거인과 소녀의 착하고 아름답고 애틋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원작에 없는 선꼬거(마크 라이런스)와 한 소년의 과거 슬픈 만남과 이별을 만들었고, 소피의 작지만 간절한 꿈도 넣었다.

동화와 달리 식인거인들이 소피의 존재를 눈치 채자 '소문의 위험성'까지 감수하면서 고아원으로 돌려보내는 선꼬거, 그러나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알고 있기에 잡아먹힐지도 모를 위험을 무릅쓰고 선꼬거에게 돌아가는 소피. 이런 반전이야말로 그랬듯이 차이와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우정과 사랑, 소통의 감동을 어느 감독보다 잘 아는 스필버그로서는 당연한 선택인지도 모른다.

마지막에 선꼬거는 글을 제대로 배우고 엄청난 독서를 통해 작가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마이 리틀 자이언트'란 동화로 쓰면서 소피의 이웃으로 살아간다. 상관없다. 동화니까. 그러나 영화는 다른 선택을 한다. 소피와 애틋한 작별을 한 선꼬거가 거인의 나라,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차별과 배타가 아니라 서로의 삶과 존재방식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그것을 무너뜨리는 관계는 강요나 억압이라는 사실을 스필버그는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마이 리틀 자이언트〉는 영화로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작품이다. 아무리 컴퓨터합성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극단적 대비의 캐릭터들과 그들의 행동은 물론 동화가 묘사를 생략한 주변 하나하나까지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역시 스필버그이다. 거인의 마을과 집, 집안 물건들, 다양한 꿈의 존재와 그 꿈이 있는 동산 등을 상상력을 발휘해 기발한 시각물과 환상적 이미지로 창조해냈다. 그가 없었다면 어떻게 배우들의 연기가 살아 숨 쉬고, 거인과 인간이 자연스럽게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었으랴. 그것도 애니메이션도 아닌 실사 영화로.

영화음악 세상

레드 바이올린 *Red violin*

정성엽 바오로 작곡가

영화는 300년이 넘는 시대를 오가며 때로는 애절하게 때로는 긴박하게 진행된다.

1998년 개봉한 프랑소와 지라르 감독의 영화 '레드 바이올린'은 하나의 바이올린이 탄생하면서 그 악기에 얽힌 사연과 또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겪는 에피소드들을 통해 보이는 인간의 욕망과 열정 그리고 각 시대 상황을 드러낸 수작이다.

먼저, 영화 속에서 이 악기를 만든 사람의 이름은 17세기의 니콜로 부조티, 실제 17세기의 현악기 3대 명장이 살았던 시대와 일치하는 배경이다. 가장 유명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1644~1737) 외에 니콜로 아마티(1596~1684)와 안드레아 과르네리(1626~1698)가 있다. 영화는 니콜로 아마티를 염두에 두고 만든 인물로 여겨진다.

굳이 영화에서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닌 아마티를 염두에 둔 이유를 따진다면 개인적 소견으로 스트라디바리우스나 과르네리는 모두 아마티의 제자로 일명 크레모나 현악기파 - 이탈리아 크레모나 지방에서 만들어진 최고의 현악기 명인들이 모두 아마티의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마티는 바니쉬 - 현악기의 광택을 통해 아름다운 소리의 비밀을 만들었다 전해지고, 이 장인의 스토리에 영감을 받은 감독은 그 광택의 비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목이 레드 바이올린인 이유, 광택의 색이 유달리 빨갛고 따라서 소리가 유달리 구슬프고 때로는 강렬한 이 악기의 비밀은 무엇일까. 영화는 시작부터 매우 정교한 역사와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영화는 부조티의 아내가 임신 중일 때 그의 옆을 지키던 산파가 보던 타로카드의 순서대로 악기가 어떤 여정을 겪는지 보여준다. 그 첫 여정으로 18세기 오스트리아의 수도원, 한 천재소년인 캐스퍼의 손에 넘어가지만 천식과 심장이 약한 이 소년이 죽으며 집시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이후 19세기 영국의 프레드릭 포프에게 전달된다. 이 프레드릭 포프는 시대적 상황으로 따져볼 때 그 유명한 '파가니니'로 추정된다.

기괴하고 천재적인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만들어낸 기교들은 그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가장 어려운 테크닉들이며 전문 연주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 작품들인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카프리스 24에는 왼손 병행 3,4,6,8,10도(한번만 연습해도 왼손에 쥐가 남), 왼손 피치카토, 기보적 글리산도와 인위적 연속 4도 하모닉스 연결을 비롯한 왼손 테크닉과 슬로 스타카토, 루레, 데따세, 스피카토. 포르타토등의 오른손 활 테크닉 등 온갖 힘들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기교들을 만들어내었다. 영화 속의 이름은 포프지만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한마디로 기괴하지만 천재인 인물이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 포프의 사랑이 끝나면서 포프는 자살기도를 하며 다시는 악기를 만지지 않았고 이후 이 악기는 그를 돌보던 중국인 종의 손을 거쳐 중국 땅으로 넘어간다. 한 골동품가게에서 어머니가 딸을 위한 선물로 산 악기는 드디어 한 소녀의 손으로 넘어가고 아이는 성장하여 이윽고 문화혁명 시대에 돌입한다. 불에 탈 뻔한 악기는 한 바이올린 선생의 간곡한 부탁으로 구사일생하여, 결국 그 선생이 죽을 때 자택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캐나다 땅으로 넘어가 오늘날인 경매 시장에 부쳐진다. 이렇게 영화는 300년이 넘는 시대를 오가며 때로는 애절하게 때로는 긴박하게 진행된다.

이제 바이올린이라는 악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글을 마치려 한다. 이 악기는 몸통과 활로 구성되어 있다. 소리 자체가 유려하고 깨끗하지만 반대로 매우 구슬프게 들리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재주가 있다고 하여 한때 악마의 악기로 불리기도 했다. 이렇게 모든 악기 가운데 가장 사랑받은 악기 중의 왕인 바이올린의 구조는 4개의 현으로 되어 있고, G-D-A-E 이렇게 4개의 개방 현들이 각각 완전 5도 간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음역은 가온 도의 완전 5도 아래인 솔부터 4옥타브까지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 기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음역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요즘은 성당에서도 가끔 현악기가 오르간에 맞추어 성가 연주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신선하고 때로는 감동적이다. 오늘은 매우 파란 가을하늘이라 왠지 베토벤의 스프링 소나타를 들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현악기와 피리로. 숨쉬는 것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시편 150,4-6 참조)

평신도 양서

정리
류주희 편집위원

제이슨 에버트 지음
김한수 옮김/ 생활성서사
154×214/ 136면/ 9,000원

사랑에 눈뜨는 너에게

'OECD 회원국 중 낙태율 1위, 연간 낙태건수 30만여 건, 청소년의 첫 성경험 12.4세'
폐쇄적이고 올바르지 못한 한국 성교육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본 적 없던 부모 세대가 성에 관한 이야기를 자녀와 나누려면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이 책은 부모들을 위한 성교육 지침서이자 청소년들에게 사랑과 정결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길잡이다. 사랑과 성(性)의 개념은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알려주고 부모와 자녀 세대가 공감하며 읽을 수 있도록 구체적 비유를 들어 유연하게 이야기를 풀어간다.

게르하르트 메스터 지음
박국병 옮김/ 분도출판사
155×185/ 각권 32면/ 각권 9,800원

인간 프란치스코/ 형제 프란치스코

순종과 청빈의 상징,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친구, 대접받기보다 대접하기 원하며 권위보다는 낮은 자세로 파격행보를 보이는 그에게 세계인들은 박수와 존경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모름지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있을 뿐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형제처럼 사랑하는 교황님의 모습을 작가 게르하르트 메스터는 '인간 프란치스코'와 '형제 프란치스코' 두 권의 책 속에 따스하고 재치 있게 그려낸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재미와 깊이를 선사한다.

미헬 레메리 지음
김해경 · 이창훈 옮김/ 가톨릭출판사
190×220/ 436면/ 15,000원

하느님과 트윗을

(별책 부록) 하느님과 트윗을 활용하기

가톨릭에 관해 꼭 알고 싶어 하는 핵심 질문 200가지를 모은 책으로, 신앙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지금 우리 삶과 연결된 질문까지 청년들이 직접 물은 질문을 한 권의 책으로 만나 볼 수 있다.
성경과 예수님, 성모님 등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교회의 기원과 역사, 기도와 성사,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까지 폭넓게 이야기한다.
혼자 또는 모임이나 단체에서 이 책을 읽고 활용하는 방법을 담은 부록 〈하느님과 트윗을 활용하기〉가 함께 있다.

성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 지음
노희성 옮김/ 루카출판사
148×210/ 420면/ 19,500원

하느님의 친구들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다빈치 코드'에서 오푸스데이는 가톨릭 근본주의 성향의 비밀결사체로 그려졌다. 영화와는 달리 실제 오푸스데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2년 교황청 유일의 교구 형태 성직자치단으로 인정한 단체이다. 그 창설자인 스페인 신부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1902~1975)는 2002년 성인으로 시성됐다.
'하느님의 친구들' 은 성 호세마리아의 강론 모음집이다. 저자는 일상 속에서 삶의 구석구석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명료하고 유쾌한 언어로 말한다.

윤인복 지음
바오로딸
152×210/ 224면/ 12,000원

그림에 숨겨진 하느님

명화 속엔 이야기가 숨어있다. 화가가 들려주고 싶은 어떤 이야기. 채찍질 당한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작품을 바라보면 그의 수난 고통을 공감하게 된다. 시각적 이미지는 상상력을 발휘해 그리스도의 고통을 체험토록 만든다. 시대에 따라 그림은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신자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는 메신저 같은 역할도 했다. 여러 시대 화가들이 성경을 시각화한 42개 성화 속에 담긴 의미를 읽어냄으로써,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도록 흥미를 더해준다. 한 점, 한 점 작품 속을 거닐다보면 숨어계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데니스 린, 쉴라 린, 마태오 린 지음
문종원 옮김/ 성바오로
152×225/ 416면/ 22,000원

치유와 회복의 끈 소속감

인간의 외로움과 슬픔은 대부분 소속감의 부재에서 온다. '치유와 회복의 끈 소속감'은 이냐시오 영성을 바탕으로 해서 A.A.(익명의 알코올의존증환자) 단주 모임의 12단계 회복 운동을 통합한 책이다. 현대인들이 심리적 영적 깨달음을 계기로 모든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돕는다. 중독은 소속감의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중독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삶에 젖어들어 가볍게는 쾌락을 가져다주지만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까지 한다. 12단계의 치유 작업은 공동체와 함께도, 개인 스스로도 할 수 있다.

소식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 음악회 개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담당사제 조성풍, 이하 '한국평협') 주최로 병인순교 15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지난 7월 8일 저녁 명동대성당에서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병인순교 150주년을 맞아 신앙 선조들의 순교정신을 되새기며 순교자를 현양하는 의미에서 올해 열 번째로 개최된 우리성가 공모를 통해 뽑힌 입상작 4곡이 초연됐는데 이번 공모가 특별히 병인순교와 한국순교자 현양을 주제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권길중 회장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순교영성을 본받아 세상이 제시하는 많은 유혹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을 청하고 싶은 것'이라며 음악회의 의미를 소개했다.

음악회에 앞서 제10회 우리성가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소박하게 열렸는데 최우수상을 수상한 임유미 체칠리아 씨(부산교구 동대신성당)는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특별히 병인순교 150주년이라 더 수상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곡을 쓰면서 순교자들의 삶을 많이 묵상했습니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음악회는 트리니타스 합창단과 서울 여성그레고리오 성가단, 기쁜우리합주단과 소프라노 장수민, 트럼펫 김수산나 등이 출연해 구노의 '무궁무진세에', 이문근 신부의 '순교자 찬가' 등과 함께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순교자 현양곡과 함께 영화 미션의 '가브리엘의 오보에' 등을 연주해 자리를 메운 800백여 명의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자랑스러운 순교자의 후손인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했다.

● "평신도! 21세기 백색순교의 주역" 주제로 한국평협 전반기 연수회 개최

한국평협이 주최한 전반기 연수회가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주관으로 전국 각 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단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8~9일 서울 마포구 절두산순교성지 내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회관에서 진행됐다.

"평신도! 21세기 백색순교의 주역"을 주제로 한 이번 연수에는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평협 회장단들이 염수정 추기경의 집전으로 개막 미사를 봉헌했다.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가 "병인순교와 21세기의 평신도"를 주제로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 특강'을 했고, 이어서 당고개성지를 순례하였다. 이어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음악회에 참석해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순교자의 후손임을 확인했고, 기념음악회가 끝난 뒤에는 남산에 올라 친교를 나누는 아가페 잔치에 함께 했다.

아침기도로 시작한 둘째 날에는 절두산 순교성지 주임 정연정 신부가 "병인순교와 절두산 순교성지"를 주제로 한 특강을 듣고, 절두산 순교성지와 한국천주교 순교자 박물관을 순례한 후 손희송 주교의 주례로 봉헌된 파견미사를 끝으로 일정을 마쳤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한반도 평화기원 성모의 밤 개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이하 '서울평협')와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정세덕 신부)는 공동주최로 5월 31일 오후 8시 명동대성당 성모동산에서 '한반도 평화기원 성모의 밤'을 열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고 북녘에 있던 본당과 신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날 성모의 밤 행사에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서울대교구 사제단, 신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자들은 성모님께 꽃바구니를 봉헌하고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 북한 복음화, 북한 주민, 이산가족과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 지향으로 묵주 기도 5단을 바쳤다.

권길중 회장은 성모의 밤 취지를 설명하며 "숨죽여 기도하는 북한의 형제자매님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언제보다도 극심해진 독재체제에서 한 끼의 밥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마다할 수 없는 굶주리는 북한주민들을 위해서 성모님께 기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례를 집전한 서울대교구장 염 추기경은 "비록 지금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도 안에서 북녘 형제들을 느낄 수 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움을 털어버리고 다 함께 성모님과 같이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 평신도 아카데미 '리더십 과정' 83명 수료

평신도가 신앙심을 바탕으로 삶의 현장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에 주목하고 이를 구현하는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서울평협이 지난 3월 처음으로 개최한 평신도 아카데미 리더십 과정에 총 98명이 등록하였고, 15주간의 긴 과정을 마친 83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이 과정엔 노길명 교수의 '다종교 사회 안에서의

교회', 조규만 주교의 '자비의 희년과 평신도 사도직', 손희송 주교의 '성사와 은총', 유경촌 주교의 '그리스도인의 삶 – 사회교리', 정순택 주교의 '주님의 기도', 송용민 신부의 '가톨릭과 개신교' 등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의문에 해답을 얻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강의에 담았다.

● 7대 종단과 함께한 범종교 지구를 위한 기도 모임

서울평협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정한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인 9월 1일을 맞아 7대종단과 함께하는 '범종교 지구를 위한 기도 모임'을 서울 명동 파밀리아채플에서 개최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야기되고 있는 지구와 지구 가족의 위기를 개별적인 학문이나 특정 과학기술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자각 아래 신앙인부터 먼저 변화하자는 취지로 서울평협의 대외협력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기도 모임에는 정교회, 개신교 등 그리스도교 자매교회뿐만 아니라 불교, 천도교, 원불교 등의 이웃종단들이 함께 참여하여 고통을 겪고 신음하고 있는 지구환경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바탕으로 한 영상을 통해 현 지구의 상황에 대해 성찰하고, 각 종단별 전통에 따른 기도가 이어졌다. 해금 연주자 정인경의 묵상을 위한 연주 뒤에는 녹색교회로 선정된 성공회의 포항교회, 불교의 4대강 생명살림 100일 순례, 천주교 계성유치원의 환경교육 등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활동사례를 듣는 것으로 기도 모임을 마쳤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정교회가 이미 기념하고 있던 전통을 따른 것으로 모든 신앙인들이 종파를 떠나 생태 환경에 대한 우리의 삶과 태도를 회개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가운데 인류에게 맡겨진 지구와 지구의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도와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교황의 모범을 따라 서울평협이 다른 종단의 신도들과 함께 지구보호를 위한 대화와 기도의 장으로 마련했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수원교구 성체신심 1일 대피정

수원교구 지속적인성체조배회(회장 이소남, 담당사제 배명섭)는 6월 2일 권선동성당에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라는 주제로 약 1,300명의 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체신심 1일 대피정을 실시했다.

성가찬미와 묵주기도 봉헌으로 시작된 피정은 ▲성체현시 ▲공동 성체조배 ▲회원서약갱신 ▲성체강복 ▲특강 ▲파견미사로 이어졌다.

이소남 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은 회원 성화의 날이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으로 서로 양보하여 은혜와 은총 가득한 피정이 되길 바란다."며 인사했고, 배명섭 신부는 신자들에게 "성체조배를 통해 얻는 자양분이 우리 나눔의 삶의 영양분이 되어 나를 통한 사랑, 자비, 용서를 나누는 삶이 되도록 더 많이 묵상하고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강을 맡은 경훈모 신부는 "성체조배실은 주님과 마주하는 공간, 자기성숙을 위한 평생학습실, 나를 비우고 주님을 품는 장소이므로 성체조배를 통해 '어쩌다 신자'가 아닌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야 한다."며 "십자가 인내를 사랑하고, 성체의 희생과 배려를 실천하며, 성모님의 비움과 가난을 본받는 것으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후 3시부터는 총대리 이성효 주교 주례로 파견미사가 봉헌됐다.

수원교구 지속적인성체조배회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교구청에서 신심미사 및 월례회의를 갖고 있으며, 오는 10월 20일 죽산성지에서 제23차 수원교구 성체현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제41차 수원교구 울뜨레야

수원교구 꾸르실료(주간 위계평, 담당사제 우종민)는 6월 6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6개 대리구 약 2,500명의 꾸르실리스따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1차 교구 울뜨레야'를 실시했다. 호국 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한 울뜨레야는 ▲기수단 입장 ▲시작기도(우종민 신부) ▲개회선언(위계평 주간) ▲환영사(우종민 신부) ▲축사(안산대리구장 김건태 신부) ▲성직자 롤료(수원가톨릭대학교 교수 곽진상 신부) ▲소통의 한마당(꾸르실료 찬미 율동 퍼포먼스), ▲경축미사로 이어졌다.

경축미사 강론에서 이용훈 주교는'세계 교회와 함께 하는 자비의 특별희년을 맞이하여 하느님의 자비를 참여하고, 증거하는 신앙인으로서 거듭나는 은총을 청하며, 꾸르실료 교육을 통해 체험한 바를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봉사자가 되기를 빈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가한 모든 꾸르실리스따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각본당의 울뜨레야 회합 참여와 본당에서의 선교활동은 물론 봉사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제2부로 실시된 '소통의 한마당'에서는 안산대리구(100명 참여) 및 안양대리구(130명 참여) 꾸르실리스따가 함께 '찬미 율동 퍼포먼스'를 펼쳐 웅장하고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 아프리카 남수단 아강그리알 성전 신축을 위한 자비와 사랑 나눔 바자회 선포식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최효용, 담당사제 이근덕)는 오는 10월 15일 개최될 자비와 사랑 나눔 바자회 선포식을 겸해 영성지도 이근덕 신부 영명축일 축하식을 지난 7월 10일 농민회 이세찬 회장댁(안성)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농민회 이세찬 회장이 교구에서 애쓰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평협 회장과 수원교구 단체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개최될 바자회 선포식 및 그동안 진행사항을 보고한 후 정성을 담아 준비한 꽃다발과 보양식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수원 레지아 꼬미시움 단장 및 교육위원 연수

수원 천지의 모후 레지아(단장 정연주, 담당사제 이근덕)는 8월 13일 교구 영성관에서 꼬미시움 단장,

교육위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레지아 꼬미시움 단장 및 교육위원 연수'를 실시했다.

1박 2일로 실시된 연수에서 기본단계피정, 심화단계피정, 교본과정의 교육 프로그램 자료 수정 및 보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구별 피정 계획 수립을 위하여 프로그램 소개와 자체 프로그램 강의 시연이 있었으며, 효율적으로 레지오 단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교재의 품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연주 단장은 2017년도 연중계획서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지구별 교육일정을 조율했다. 레지아에서는 2018년 5월 12일 레지오 마리애 도입 60주년 맞이해 2017년 5월 13일 청년 쁘레시디움 단원 도보성지순례와 7월 8일 소년단원 야외행사를 기획했다. 또한 성인 단원들은 '순교영성 함양을 위한 레지오 단원 교구내 성지순례'을 기획 1년에 걸쳐 대리구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근덕 신부는 "하느님이 주신 생명의 질서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하느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꼬미시움 간부들이 레지오 단원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이 참된 성모님의 군사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참 신앙인의 삶과 사명감을 갖고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난을 감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의정부교구 2016년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연수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한효수, 담당사제 강신모)는 6월 24~25일 의정부 교구 단체장 40명을 대상으로 민족화해센터에서 연수를 실시했다. 첫째 날, 담당사제인 강신모 신부는 '새로운 시대의 평신도사도직운동'이란 강의 주제를 통해,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다. 반면에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 두 개의 상반된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로 산다는 것은 현대 세계의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를 거슬러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거 하는 싸움이 되어야 한다. 사도직 단체들의 쇠퇴는, 급변하는 사회 탓도 아니고, 본당 신부들이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도 아니다. 단체들 스스로가 복음적 가치와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세상에 복음적 가치를 증거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본래의 마음을 잃은 것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주어진 '1) 각 단체의 현황과 어려움, 2) 각 단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생각과 노력을 하고 있는가?' 주제에 대해 조별로 토의를 한 후 발표시간에는 현실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개선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했다.

둘째 날, 강 신부는 '평신도 사도직운동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1. 생활 다시보기의 출발, 2. 생활다시보기 훈련의 내용) 강의에서 "제의방 봉사자는 각종 전례 규정은 잘 아는데, 예수그리스도는 익숙하지 않다. 빈첸시오 회원은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낯섭니다. 기획분과장은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지오 단원은 오로지 성모님만 찾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활다시보기 훈련에 와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평소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알고자 노력하고 그분의 뜻을 찾고자 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처럼 생활다시보기 훈련 과정에서 우리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민낯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생활다시보기 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라고 강의했고, 조별 나눔(1. 우리 단체는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 했는지?, 2. 이번 연수에 대한 평가와 제언) 발표 후 교구장이 주례한 파견 미사로 연수를 마쳤다.

● 의정부교구 2016 성령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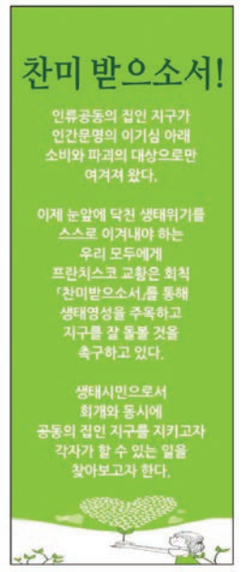
지난 6월 18일 토요일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에서 의정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주관으로 교구 성령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인도의 마태오 나이콤 파람 신부 외 두 분(안드레아 신부, 데레사 수녀)이 강사로 와 성경 안에서의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주제로 이야기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2,500여 명의 신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치유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파견미사를 집전한 의정부교구장 이기헌 베드로 주교는 강론 중에 "성령 안에서 일치의 기쁨을 만끽하며 지난 시간을 회개하고 새롭게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한다."면서 "성령의 위대한 능력을 세상에 흘러들게 함으로써 성경 안의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신 세분의 성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부산평협 '지구 살리기 실천 방안' 책갈피 제작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도용희, 담당사제 손삼석 주교)는 지난 7월 3일 기초공동체 복음화의 실천을 위해 '지구 살리기 실천 방안' 책갈피를 제작하여 교구 내 전 신자들에게 보급했다. 이 책갈피는 환경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바탕으로 지구 살리기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 모두에게 생태시민으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태영성에 기대어 지구를 잘 돌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평협 임원 워크숍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길병석, 담당사제 서철, 이하 '청주평협')는 임원들의 영적쇄신과 '하느님 바로알기'를 위하여 지난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경남 통영시 욕지도공소로 임원 워크숍을 다녀왔다. 욕지도공소에서 공소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하고 오찬과 다과를 하며 비록 교구는 다르지만 다 같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공동체적 신앙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욕지'란 '알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며 공소이름도 '알고자 하거든 공소'라는 의미라고 한다. 욕지도에 머무는 동안 욕지도공소 신자들의 안내로 욕지도 여러 곳을 두루 다니며 하느님을 바로 알기위한 시간을 가졌다.

● 프란치스코 교황 꽃동네 방문 2주년 기념 피정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시 청주교구의 꽃동네를 찾은 8월 15일을 기념해 청주평협 임원들과 청주교구 여성연합회 임원들이 함께 꽃동네를 방문해 하루 피정을 가졌다. 2년 전 교황의 동선을 따라 진행된 피정은 우선 영성원에서 선교사목국장 서철 신부의 강의를 통해 교황님의 영성에 대해 더욱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태아동산에 모여 낙태된 태아들을 위해 묵주기도를 바쳤다. 원래는 교황이 다녔던 모든 동선을 도보로 이동할 계획이었으나 폭염으로 부득이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어 참가자들의 아쉬움을 샀다. 비록 하루 피정이었지만 낮은 곳으로 행보하신 교황의 영성을 이해하고, 다시 한 번 그때의 감동과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마산교구 제5대 교구장 배기현 주교 서품 및 착좌식

마산교구 제5대 교구장인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의 서품과 착좌식이 6월 8일 마산체육관에서 거행됐다. 이날 서품 · 착좌식에는 주한 교황대사인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를 비롯하여 염수정 추기경과 주교단, 성직자, 수도자, 신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익 주교(전 춘천교구장)의 주례로 이루어졌다. 서품 · 착좌식은 서품 미사를 시작으로 후보자 청원과 수락 예식, 수품자 서약, 성인호칭 기도, 안수와 주교 서품 기도, 주교의 표지인 반지 · 모관 · 지팡이 수여, 성찬 전례, 착좌식 순으로 진행됐다. 배 주교는 답사를 통해 "훌륭해서 교구장으로 뽑힌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불쌍해서 불러 주셨으니 여러분도 함께 손을 잡아 달라."라고 청했다. 이날 착좌식에는 문재인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박종훈 교육감(경상남도 교육감), 안상수 시장(창원시장) 등이 참석해 새 교구장의 탄생을 축하했다.

● 마산평협 제2차 상임위원회의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안상덕, 담당사제 임상엽)는 지난 6월 24일 교구청 4층 회의실에서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회의를 시작하며 교구 총대리인 임상엽 신부는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의 착좌식 준비에 헌신해주신 모든 평협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주교님의 간곡한 부름에 거절할 도리가 없어 아직도 보속할 것이 남았구나 하는 마음으로 총대리 직무를 수락했다"고 밝히며, "갑작스레 맡게 되어 현실감도 떨어지고 생소하지만 40년 사제생활의 연륜과 경험으로 교구장을 잘 보필해 교구를 이끌어 갈 것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함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이어 "이제 주교 착좌식에 이어 교구 설정 50주년의 큰 행사가 남아있다.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좋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교구 설정 50주년이 전 교구민이 영적쇄신을 바탕으로 세상과의 소통에도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교구의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상덕 총회장은 "궂은 날씨에도 상임위원회의에 참석해 주신 영성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나날이 기쁜 날 되길 기도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임상엽 신부님과 첫 인사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총대리 신부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겸손과 사랑의 덕을 배우고 함께 실천하는 평협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을 드립니다. 이번 교구장님 착좌식에서 보여준 열정이 교구설정 50주년 기념미사 준비와 한국평협 제3차 상임위원회 등 앞으로 있을 많은 행사에도 일치와 화합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라는 인사로 회의를 시작했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협 · 여성위원회 임원수련회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나현식, 담당사제 김정용, 이하 '광주평협')와 여성위원회(위원장 김명자, 담당사제 김정용)는 7월 15~16일 여수 돌산도(해맞이펜션, 향일암)에서 담당사제와 임원 등 24명이 참석하여 임원수련회를 가졌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금년도 전반기에 실시한 사업들을 평가하고 하반기에 예정된 사업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수련회 과정에서 임원 간 친목과 일치를 다지는 뜻깊은 친교의 시간이었다.

● 역대 회장과의 만남

광주평협은 7월 18일 역대 평협 회장들과 함께하는 초대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모임은 생존하신 역대 11분 회장님이 참석해 교구 주요 현안과 평협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듣고 좋은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구 평신도 활동에 대해 발전적 의견을 나누는 훈훈한 친교의 자리가 되었다.

● 몽탄 이내수 신부 묘소 정비

광주평협은 8월 12일 무안군 몽탄면에 자리한 호남지역의 최초 사제인 이내수 아우구스티노 신부의 묘소를 방문하여 낡은 묘비석을 보수하고 묘역을 정비했다. 순교자성월에 실시할 '주교님과 함께하는 도보 성지순례' 행사(9월 24일)에 앞서 현장을 답사하면서 순례 길도 보완하였다.

● 지구별 한마음대회 개최

순천지구평협(회장 임영호, 담당사제 조진무)은 6월 11일 포스코백운산수련원에서 둘레길 산행과 묵상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내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친교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광주동부지구평협(회장 이세민, 담당사제 김영철)은 6월 18일 조대여고 체육관에서 체육행사를, 광주북부1지구평협(회장 김향자, 담당 김재학)은 6월 19일 담양 금성산성에서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다.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 제29차 주간단회의 개최

꾸르실료 한국협의회(회장 손상민, 대표담당사제 이재경)는 8월 27일(토) 오후 2시에 대전교구 꾸르실료 사무국에서 제29차 주간단회의를 개최하고 꾸르실료 한국협의회와 각 교구 꾸르실료의 사업보고 및 '한국 꾸르실료 50년사 편찬', '꾸르실료 운동의 기본사상' 개정, 꾸르실료 CI 가이드북 제작, 추경 예산안 승인 등 주요현안에 대한 의안을 심의했다.

또한 CBCK 제안에 따라 회칙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한편,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영문 공식 명칭을 Korean Cursillo in Christianity(KCC)로 결정했다. 내년 2017년에 꾸르실료 한국 도입 50주년을 맞이하는 꾸르실료 한국협의회는 50주년 기념 울뜨레야 및 50주년사 편찬, 스페인 꾸르실료 발상지 성지순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꾸르실료 운동의 정체성 확립 및 내실화를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제29차 주간단회의에는 각 교구 주간과 임원, 한국협의회 임원 등 23명이 참석했으며, 제30차 주간단회의는 11월 19일(토) 부산교구에서 개최된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 국외 봉사활동 실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회장 김태영, 담당사제 최정묵)는 '가난한 사람들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찾아 떠나는 여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 동안 울람바트라에 있는 몽골 항올성당에 김태영 회장을 포함한 23명의 빈첸시안들이 낙후된 몽골 빈첸시오 센터 보수와 가정방문, 쓰레기장 식사준비 등의 봉사를 통해 현지인과 사랑의 교류를 나누고 왔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국가 간의 교류와 빈첸시안의 정신 고양과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하느님의 어린양이 되었던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그동안 천사의집 후원회원들의 소중한 정성으로 모아진 천사의 기금 1,500만 원을 몽골 국가이사회 협의회에 전달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왔다.

한국 가톨릭 간호사협회

● 전국 가톨릭 간호대학생 피정

한국 가톨릭 간호사협회(회장 홍현자 수녀)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홍현자 회장을 비롯한 7명의 임원과 간호대학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가톨릭 간호대학생 연합피정을 개최했다.

피정은 '괜찮아'라는 주제로, 1부는 상처받은 자신을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와 2부는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구성됐고 김동렬 수사가 진행했다.

● 간호영성세미나

한국 가톨릭 간호사협회는 8월 4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전국의 회원 2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영성세미나를 개최했다. 홍현자 회장의 인사와 영상 기도로 시작하여 특강으로 고통을 통한 희망(박승찬 교수), 환대의 영성(황의현 신부)이 진행됐다.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고통의 의미를 찾아보고 고통을 넘어 희망을 찾아가는 삶의 자세와 환대의 의미 속에서 영성을 채우는 시간을 가졌다. 파견미사를 끝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국 가톨릭 시각장애인 선교 협의회

● 전국 가톨릭 시각장애인 하계 수련회 개최

한국 가톨릭 시각장애인 선교 협의회(회장 윤재송, 담당사제 김용태)가 주최하고 대전교구 장애인 사목부(전담 유창연 신부)가 주관한 2016 전국 가톨릭 시각장애인 하계 수련회가 지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만리포 홍익대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렸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미사로 시작하여 끝없이 펼쳐진 서해안의 고운 모래 벌에서 체험 활동을 하며 장애인의 능력을 향상과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증진을 위해 전국 10개 교구 선교회에서 400여 명의 시각장애인과 봉사자가 일치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미사로 마쳤다. 숨 막히는 폭염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었다.

이번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서울평협, 사랑의 열매가 후원을, 특히 무더운 날씨임에도 안전한 수련회가 되도록 많은 자원봉사자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함께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한국 매리지 엔카운터

● 의정부ME 가족모임

지난 6월 6일 양주문화 예술회관에서 이기헌 주교 집전으로 사제 17명, 의정부ME 가족 750여 명이 미사와 함께 의정부ME 가족모임을 가졌다.

한국ME 대표팀 김홍기 · 최계진 부부와 김웅태 신부, 상임위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했다.

● 팀 양성교육

지난 6월11~12일 장충동 베네딕도 피정의 집에서 발표사제와 팀양성 23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사도직 프로그램(엑소더스, 선물) 및 ME주말 대요지침의 작성, 검토, 발표시 유의점 등을 전달하는 내용의 팀 양성교육이 실시됐다.

● 디퍼 148차 주말

8월26일부터 2박 3일 동안 ME 첫 주말을 수강 후 봉사자로 초대받은 사제와 부부들이 장충동 베네딕도 피정의 집에서 디퍼 148차 주말을 가졌다. 이 교육에는 발표팀 3명, 사제 6명, 9부부가 함께했다.

Editor's Letter

지난여름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스티커의 "답게"라는 글씨가 "덥게"라고 읽힐 정도로,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답답한 일들이 이어져 더욱 피곤하고 덥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주님,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라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 시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구절 또한 "여름은 참으로 더웠습니다."라고도 읽히지만 말입니다.

이번 호에는 한국평협 전반기와 후반기 연수회 때 발표한 논문 중, 조광 교수의 "병인순교와 현대사회의 평신도"를 요약하고 정희완 신부의 "향후 교회의 변화와 평신도의 역할" 전반부를 실었습니다.

"시간은 변화를 수반한다. 시간을 다루는 학문인 역사는 그 변화를 추적하고 변화가 가지고 있는 원인과 의미를 탐구한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의 순간은 변화의 장면이다"(조광).

"한국 가톨릭교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 한국 가톨릭교회에 뿌리 깊이 내려 있는 성직주의와 물질주의는 교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정희완).

"평신도! 21세기 백색순교의 주역"을 주제로 한 두 번의 연수회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의 순교인 홍색순교는 물론 땀의 순교인 백색순교도 어렵겠구나!"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아/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정현종,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에서).

꽃도 지고, 잎도 지고, 열매가 드러나는 계절입니다. 저를 돌아보니 까닭 모를 허전함처럼 바람이 일어 때 이른 낙엽들만 굴리고 있습니다.

편집장 배봉한 세례자 요한 올림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 발간과 관련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관련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catholic.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16년 10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 주소
서울평협	유영훈	스테파노	stephen@clas.or.kr
대전평단협	이병인	미카엘	duck1995@hanmail.net
인천평협	김선우	다미아노	ksw7287@hanmail.net
원주평협	백정현	임마누엘	wonju@pbc.co.kr
대구평단협	이영구	실베스텔	mecouple@hanmail.net
부산평협	전영주	바오로	libys@hanmail.net
청주평협	이상철	방지거	howareyoulee@naver.com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의정부 평단협	최태용	레오	choy1902@hanmail.net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손세공	비오	eldison@naver.com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한경숙	마리안나	kshan628@nate.com
한국가톨릭병원협회	강영숙	마리아 막달레나	magdalena57@hanmail.net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문호	토마스	younamedia@hanmil.net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황웅진	헨리코	pravda89@naver.com
M.B.W. 한국 공동체 추진 봉사회 회장	송애련	젬마	ae4789@hanmail.net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이익태	마르코	7romeo@naver.com

공지 사항

평신도 원고모집

한국평협이 개편 발행하는 계간 '평신도'는 교회 내 각종 정보와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들의 소식으로 엮는 종합정보지입니다. '평신도'에서는 열린마당 코너의 생활수필에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원고의 양은 200자 원고지 10매입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